

18世紀國語의 形態論的特徵

—「老乞大」類의 國語關係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李 承 旭*

序 言

- I. 「老乞大」類의 性格
- II. 形態論의 分析과 記述

結 語

序 言

國語史의 時代區分에서 近代國語의 時期를 17世紀 初로부터 3世紀間으로 區分하는 데는 別다른 異意가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이 時期는 15世紀國語에서 分析 記述할 수 있었던 當時의 音韻·形態, 그리고 語彙等 여러 特徵, 즉 中世語의 性格이 16世紀 後半에 이르면서 새로운 言語의 秩序와 體系의 均衡을 위한 實驗과 摸索의 變化가 일어났던 때로부터 開花期에 이르는 區間에 該當한다.

그 동안 國語研究의 大部分이 中世語와 現代語에 偏重되어 와야만 했던 事情을 勘案해 볼 때 近代語의 史的 諸特徵은 그 自體의 徹底한 研究로부터 結果된 여러 事實을 가지고 具體化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中世語와 現代語 사이에 끼어 있어 區分되는 것으로 處理되어져 오고 있는 느낌이 짙다. 즉 이 期間의 音韻·形態·語彙 등 여러 斷層에 나타난 特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직도 우리는 뚜렷한 結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理由로는 勿論 다른 時期에 比하여 近代國語의 研究가 別로 學界의 關心을 刺戟할 만한 問題性을 안고 있지 못한 까닭으로 그 研究의 目錄이 거의 없다는 것만으로도 指摘되어질 것 같다. 꼬집어 말한다면 言語의 相當한 隔差를 느끼게 하여 時代感을 刺戟하는 現象의 結果에 關心이 기울어지므로 해서 進化된 狀態를 마련하기까지 그 裏面에서 潛在의 으로 빛어진 言語의 苦悶과 葛藤의 直視에는 別로 興味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言語는 한 時도 停滯함이 없이 不斷히 흘러 變하는 時間的 連鎖物이다. 어느 時期의 言語事實

* 西江大學校 文科大學教授, 國語學

이라 하더라도 이 過程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한 토막 한 토막은 各時期의 特徵의인 構造體系를 가지고 區分되어지며, 서로의 繼起轉承의 關係는 辯證法的인 變遷의 原理에 이끌리어 運營되어 가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러한 繼起轉承의 關係에 있는 各時期의 토막 가운데 여러 段落을 뛰어 넘을수록 길에 露呈되는 隔差는 顯著해지는 것이 當然하다. 그러나 이러한 飛躍으로 말미암은 體系上의 不連續性을 메운다는 것은 順調로운 일이 못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言語研究의 時代에 대한 感度가 지나치게 直視되는 言語의 隔差에만 두워짐으로 해서 必然的으로 일어날 問題를 豫想해야 할 것이며, 이를 排除하기 위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어느 時期의 構造의 體系가 崩壞되고 새로운 秩序와 均衡을 模索하기 위하여 新舊가 뒤섞인 亂脈의 狀態를 빚거나 過渡의인 여러 手段이 實驗되어지는 過程에 대해서도 그 結果에 못지 않게 注目할 값이 있다. 이러한 現象은 區分된 時代안에서도 比較的 均衡잡힌 狀態로 安定을 維持하는 期間이 있는가 하면 變動의 要因이 膨大하여 混亂의 動機가 되는 期間도 가지게 마련이다. 다음 時代로의 轉移는 이런 理由로 可能해진다. 즉 言語가 停滯하지 않는다는 命題는 이 事實을 말함이다.

한편 適用시키는 範圍를 좀 넓혀 생각할 때 이러한 變遷의 過程의 論理는 中世와 現代를 각각 安定된 狀態의 構造라고 假定할 때, 여기에 끼이는 近代는 이 兩時代를 잇기 위하여 자못 重要的 役割을 해냈던 時期라고 하여 좋을 듯하다. 이런 點을 미루어 보아서도 近代國語에 대한 諸問題의 究明은 어떤 다른 時期의 그것보다 가깝게 다루어질 理由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史的인 深層에 가로놓인 여러 特徵이 記述될 蓋然性이 있음으로 해서 이의 徹底한 考察이 促求되는 바 크다.

또한 이 時期의 國語에 대한 研究를 躊躇케 한 다른 하나의 理由로는 文獻資料가 매우 多樣하여 아직도 하나 하나 整理가 안되었다는 點이 指摘될 상 싶다.

中世國語, 特히 文法資料를 담고 있는 文獻들의 性格에 비해 이 時期의 文獻이나 여기에 投影된 文法の 資料에는 注目할 만한 特性이 있으니 우선 다음의 몇가지가 注目된다.

첫째로, 中世國語 資料의 大部分이 文語의 性格을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反하여 近代國語의 경우는 相當한 分野에 걸친 文獻에서 口語를 主軸으로 한 文法現實의 反映이 두드러지게 露出되었다는 點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文法研究의 다른 側面, 이른바 口語文法の 分野를 開拓할 豊富한 資料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둘째로, 勿論 이것은 前項의 特性과는 關聯이 있는 것이지만 오랜 동안의 漢文套의 文章形式에 因襲되어 있음으로 해서 빚어졌을 吏讀式 或은 懸吐式語法으로부터의 脫皮된 口述이 具體적으로 表記되었을 可能性이 보인다는 事實이다. 中世國語의 文法形式을 性格의인 面에서 規定함에 앞서 오래 前부터 漢文을 읽고 쓰면서 慣用되어 내려온 語套 따위가 끼쳤으리라고 推測되는

여러 制約에 대하여 敏感한 診斷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勿論 그것이 끼쳐진 程度를 測定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도 않거니와 分明하게 가려내기 조차 어려울런지는 모르나 필경은 制約 或은 익숙해진 漢文生活의 情性을 充實하게 옮기려는 意圖가 作用했으리라는 傾向만은 批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圖의 作用으로 말미암아 招來될 結果는 單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資料로서 採擇될 경우는 조심성 있는 態度가 바람직하다. 이것으로 해서 結局에는 言衆의 生活하는 言語와 文章語 사이에 距離感이 굳혀지고 言語生活의 二重性이란 特殊한 環境이 造成되었으니 各時期의 文獻資料의 性格構成을 理解하는 데는 重要な 要件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要件의 基盤위에서 中世와 近代의 文獻資料에 反映된 文法形式에는 각각 다른 底邊을 가지고 있었을 蓋然性이 엿보이는 것이다.

세째로, 兩時代의 研究資料를 採擇하는데 있어 그 性格을 批判해야 할 또 하나의 要諦는 文獻의 板本上 特徵이라고 본다. 近代의 文獻들은 그 板本에 있어 比較的 여러가지의 異本을 가지고 있다. 前代의 文獻이 그 板本에 있어 比較的 單一한 性格을 가짐은 그 稀貴性에서 緣由된 것이라고 理解되지만 制度上的 劃一性 같은 것도 原因이 되었을 것 같다. 一見 여러가지 異本の 出現은 混亂을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其實 異本間에 드러나는 여러가지 文法上的 問題를 比較 檢討할 수 있다는 點에서는 오히려 多幸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異本들의 體系的 整理를 서둘러야 하겠거니와 板本の 正確한 解題를 分明히 하므로써 文獻에 대한 批判을 거쳐야 하겠다. 그런 然後에야 비로소 適切한 資料로서 採擇이 可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로, 近代國語의 文獻에 드러난 正書法은 無軌道한 漂流狀態에 放置된 대로의 것이었기 때문에 資料로 取捨하는데 적잖은 問題點을 가지게 되는 形便이다. 比較的 整然한 秩序에서 運營되어 오던 表記가 질을 잃고 捻잡을 수 없게 되어 간 亂脈狀을 當時의 文獻들은 如實히 드러내고 있다. 이 時期의 正書法의 特徵이라면 우선 表音에 充實하려 했던 傾向이 指摘될 것 같다. 그러므로 記錄된 言語形式을 無批判하게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삼가할 일이겠지만, 오히려 여러 現象들의 있는 實狀을 把握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以上, 近代國語의 資料가 가지는 性格의 몇가지를 간추려 近代國語의 研究에 앞서 先行하여야 할 若干의 問題를 提示하였다. 한편 이들은 이 時期의 口語研究의 갈피를 어지럽혔던 要因으로서도 어떤 意味를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各項에서 밝힌 이 時期의 資料供給源이라 할 수 있는 文獻이 가진 特性은 前代의 그것에 比하여 어떤 缺陷처럼 풀이될 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른 斷面의 研究나 方法을 提起해 주는 重要な 事實로 肯定할 일임을 특히 強調해 두어야만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近代國語의 研究는 그 어떤 다른 時代의 그것에 못지않은 國語史의 意義를 찾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 한 關心을 기울여야 하겠거니와, 資料의

性格把握과 이의 適切한 驅使로서 中世國語研究에서 거둔 成果를 補完할 수 있는 期待를 豫想하게 되었다.

本稿는 近代國語研究의 當爲性에 비추어 건우어질 收穫을 보태는 意味에서 特定資料를 바탕으로 한 制限된 分野의 課題를 作業하는데 焦點을 두기로 한다. 즉, 特定資料라 함은 「老乞大」類⁽¹⁾ 중에서 「老乞大諺解」·「蒙語老乞大」 그리고 「清語老乞大」에 나타난 國語關係 資料만을 對象으로 採擇함을 말한다. 한편 制限된 分野의 課題란 뜻은 넓게 보아 國語文法史를 엮기 위한 한 段落의 作業에 始終될 것임을 이르며 좁게는 주어진 一定 時期의 國語에 대한 形態論의 斷面의 考察을 意味한다. 結局 「老乞大」類에 反射된 國語資料를 中心으로 한 18世紀國語의 形態論의 記述을 指向하는 셈이다. 資料로서 「老乞大」類를 採擇하게 된 데는 그런대로의 理由가 있으니,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 簡略히 살펴 보기로 한다.

I. 「老乞大」類의 性格

本是 「老乞大」가 「朴通事」와 더불어 漢語學習을 위한 重要한 譯學書目中 하나이었다 함은 일일이 典據를 들어 再論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²⁾ 「老乞大」란 書名이 첫 선을 보이는 文獻上的 記錄은 아직도 世宗五年 癸卯六月條⁽³⁾에 나타난 「世宗實錄」의 것을 거슬러 올라 갈 수 없으나 傳來되고 있는 漢語本 「老乞大」의 漢語語法이나 記事內容의 時代의 特徵 등을 勘案하여 이것이 이루어졌을 年代는 이 보다 훨씬 앞섰을 것이라는 몇몇 提論⁽⁴⁾은 이것의 形成을 둘러싼 여러 事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注目을 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譯學書目도 그렇듯이 「老乞大」도 일찌기 司譯院의 講書書目으로 舉論되어졌던 事實들로 미루어 이미 司譯院이 設置되던 太祖二年(1393)⁽⁵⁾代에 「漢語之指南」으로서의 面貌를 갖추었으리라는 可能性도 짙은 것이다. 한편, 보다 積極的인 推定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本文內容에 元代語法의 特徵이 記述되어진

(1) 「老乞大」와 같이 特徵있는 書目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司譯院의 講書指南으로 採擇되어 이른 바 四學에서 共通으로 課해졌던 教材였던 까닭으로 漢語本의 「老乞大」를 비롯하여, 蒙語·清語의 여러 板本이 傳해졌은 當然한 일이며, 한편 倭語의 「老乞大」도 있었다 하나 有爲에 돌아가 알 길이 없다. 이 밖에 「翻譯老乞大」를 爲始하여 「老乞大諺解」·「重刊老乞大諺解」 및 「新釋老乞大諺解」 등 漢語를 敎習하기 위한 國語와의 對譯本만 보더라도 매우 多樣的 板本關係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總稱하는 뜻으로 「老乞大」類라 하였다.

(2) cf. 「世宗實錄」 卷六十四, 十六年 甲寅六月條 「頒鑄字所印老乞大朴通事于承文院司譯院, 此二書譯中國語之書也」

(3) cf. 「世宗實錄」 卷二十, 五年癸卯六月條 「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朴通事前後漢直解李經等書, 緣無板本, 讀者傳寫謬習, 請令鑄字所印出, 從之」

(4) 閔泳珪教授는 「老乞大」의 內容가운데 時代性이 反映된 記事를 根據하여<무릇, 高麗末 洪武十五年 前後에 그것이 처음으로 著作된 때>라 推定했으며, 楊聯陞教授의 경우는 「老乞大」의 漢語語法의 特徵을 記述하여 그 時期를 推定하였는데 그 結果는 前者와 비슷하게 내려졌다.

cf. 閔泳珪: 老乞大辨疑·人文科學·十二輯 1964 p. 208

楊聯陞: 老乞大·朴通事の語法語彙. 東方學志 第三輯 p. 4.

(5) 「太祖實錄」 二年 九月 辛酉條에 「置司譯院 肆習華言」이란 記事가 있다.

다른가, ⁽⁶⁾〈高麗〉라는 語彙가 쓰인 것, 또는 司譯院의 前身이라 할 만한 高麗의 「漢語都監」⁽⁷⁾이 이미 高麗에 設置되어 있다는 點들을 根據로 삼아 高麗末期에 編纂出刊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一說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内外의 記錄이 網羅되어 새로운 資料가 追加되어지지 않는 限 傍證을 넘어서 斷定的 매듭을 바라기는 어려운 現實이다.

이와 같이 이른 바 漢語本 「老乞大」의 書誌의 淵源에 關係되는 여러 問題와 더불어 이것이 漢語의 會話를 實用的으로 다룬 教科書라는 點에서 어떻게 役割하여 왔을가 하는 面에서도 궁금한 일이 있다. 즉 「老乞大」의 原文은 本是 그 譯訓을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通用漢字音으로 읽혀지는 것만으로는 아무 意味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의 實用性은 漢文으로서의 理解나 漢字의 發音 그것이 아니라 漢語의 發音을 어떻게 傳授하여 익히는가에 있었을 것이니 發音記號의 表音이 別途로 나타난 바 없는 漢語本의 「老乞大」 만으로는 特殊한 講書方法에 依存되지 않는 限 그 實效를 거두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洪武正韻譯訓序」에서도 指摘했듯이 ⁽⁸⁾ 漢語의 바른 語音을 傳授할 길이 궁색했기 때문이며, 그 結果로서 「直解童子習序」에서도,

第以學漢音者 得於轉傳之餘 承授既久 訛謬滋多

라 하여 〈漢音〉의 〈訛謬〉를 指摘하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은 隘路를 避할 수 없는 當時의 狀況은 結局 「又無中原學士從旁正之 故號爲宿儒老譯 終身由之 而卒於孤陋…」와 같은 難境을 빚어내게 하였을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狀況은 表音文字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當時의 與件下에서는 不可抗力의 일이었으며, 그러나 〈事大交鄰〉을 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特殊한 漢語教育이 必要에 따라 言語教科書로서는 缺陷이 없는 바 아니나 이를 編纂하게 된 상상다. 漢語를 비롯한 外國語의 正確한 疎通이 政治·文化 等 〈事大交鄰〉의 政策遂行이 점점 強調되어지던 當時의 情勢下에서 訓民正音의 創制는 國語生活의 樣相을 달리 하였을 뿐 아니라, 오래토록 累積되어 오던 外國語教育이란 面에도 劃期的인 轉機가 되었을 것은 分明하다.

그것은 우선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⁹⁾과 같이 漢語의 바른 表音手段이 되었으니 이로서 〈毫釐〉의 〈差錯〉도 없는 ⁽¹⁰⁾ 漢音의 表記와 傳授가 可能하게 된 셈이다. 그리하여 韻書의 編纂이나 譯訓에 새로운 境地를 열게 되었으며, 거의 같은 時期에 「東國正韻」·「四聲通攷」·「訓武正韻譯

(6) 이와 같은 主張을 돕는 資料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다음의 實錄記事가 注目된다.

「成宗實錄」卷一百二十二, 十一年 庚子 十月條

「御書講 侍讀官李昌臣啓曰 前者承命 實正漢語於頭目戴敬 敬見老乞大朴通事曰 此乃元朝時語也 與今華語頗異 多有未解處」

(7) 「世宗實錄」卷九十三, 二十三年 辛酉八月條

「自三韓至于高麗 世世事大 高麗設漢語都監及司譯尙書房 專習華語」

(8) 中國語를 表記한 漢字의 特殊性 때문에 異國間의 言語疎通에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難點에 대하여 일찌기 「洪武正韻譯訓序」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古人講梵音行中國 而吾夫子之經不能過談提河者 以字不以聲也 夫有聲乃有字 寧有無聲之字耶」

(9) cf. 東國正韻序

(10) 이에 대하여는 東國正韻序, 그리고 洪武正韻譯訓序에 分明하게 밝혀져 있다.

「古人著書作圖 音和 類隔 反切 回切其法甚詳 而尚不免含糊囁嚅 日來於調協 自正音作而萬若一聲毫釐不差 實傳音之福

訓」등 一連의 韻學關係 事業이 잇다르게 되었음은 當然한 趨勢였다.⁽¹¹⁾ 그러나 이 時期의 韻學關係는 漢字音의 〈因循舊習者〉를 〈大正〉하기 위한 理想的漢字音의 追求와 改新에 關心을 기울였을 뿐 實踐的인 漢語學習의 問題에 까지는 具體化시키지 못했던 것 같다.

漢語教育의 指南으로 우리 文字가 實用되는 契機는 지금까지의 밝혀진 事實로 미루어 崔世珍이 著述한 漢字關係의 책들(翻譯老乞大·翻譯朴通事·老朴集覽·四聲通解 등)이 처음이라고 推定된다. 崔世珍은 觀念論的인 理論의 學問보다도 現實的인 實踐의 學問을 追求해 온 當代의 漢學과 吏文의 大家이었다. 數世紀에 걸쳐 〈漢語指南〉으로 致命的인 缺陷을 안고 있는 채 使用되어 내려 오던 「老乞大」가 여기에 이르러 「翻譯老乞大」로 그 面貌를 갖추게 됨은 제대로의 機能을 具備하여 完璧을 期했다는 點에서 큰 意味를 갖는다. 「翻譯老乞大」에 대하여는 四聲通解(中宗12年·1517)에도 言及이 되어 있고,⁽¹²⁾ 卷末의 附錄으로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收錄되어 있어 그 書目的의 消息은 알겠거니와 「翻譯朴通事」와 더불어 이른바 「翻譯老乞大」란 책은 烏有에 돌아 갔으니 그 內容의 全貌는 杳연하여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짐작컨대 이 책은 漢字의 大家이었던 崔世珍이 能히 著撰했음직하며, 그 體制나 內容에 있어서도 「老乞大」 原文에 中國式發音과 더불어 當代 우리나라 現實漢字音을 併記하여 表音의 效를 거두는 한편, 原文을 曉解하여 文意를 疎通케 하므로써 名實相符한 最初의 〈漢語之指南〉이었을 것임은 現存의 「老乞大諺解」를 미루어서도 알만 할 것 같다.⁽¹³⁾

한편 「老乞大諺解」의 書目이 드러나는 最初의 記事는 通文館誌에 나타난다.⁽¹⁴⁾ 이에 의하면 顯宗 11年(1670)에 陽坡 鄭太和가 刊刻하여 諺解한 것을 印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에 그 板本이 傳해지는지, 傳해진다면 어느 것이 이에 該當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明確한 答이 내려진 形便이 아니다. 그 緣由인즉, 奎章閣藏書 第九로 影印된 「老乞大諺解」의 解題 가운데서 末松保和氏는 바로 景印原本을 이 板本이라 한 데 反하여 方鍾鉉先生은 正宗19年(1795)에 重訂印行한 바 있는 活字本일 것이라고 推定하였다.⁽¹⁵⁾

그 後, 이에 대하여 別달리 言及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며, 언젠가는 餘他의 많은 板本과 더불어 이를 調査하여 그 顛末을 밝힘도 뜻있는 일로되 本稿의 目的이 여기에 머물 수 없기에

紐也」〈東國正韻序〉

「今以 訓民正音譯之 聲與韻譜 不待音和 類隔正切回切之繁且勞 而舉口得音 不差毫釐」(洪武正韻譯訓序)

(11) 〈事大交鄰〉의 政策遂行에 있어 切實하게 要求되었던 外國語教育, 特히 漢學에서 發音符號의 구실을 할 수 있는 表音文字의 必要性은 懇切했다. 그런 狀況에서 訓民正音의 創制는 하나의 轉機가 되었던 것이 確實하다.

(12) 夫始肄華語音 先讀老乞大朴通事二書 以爲學語之階梯 初學二書者 必觀四聲通攷 以讀漢音之正俗 然其二書訓解承訛傳僞 通考諸字有音無釋 承訛傳僞 則雖經老譯莫能就正 有音無釋 則一字重出無所適從 臣即將二書諺解音義書中古語 宸成輯覽陳乞刊行 人便閱習 今將通攷一書亦已轉聞于 〈四聲通解·序〉

(13) 한편 「鑛板考」 卷四 〈譯語類〉에도,

「老乞大一卷 諺解二卷 不著撰人氏名 雜敘華語 用之象疑較舊之時 其諺解則 崔世珍撰 當宇乙卯司譯院奉教重訂」라 한 記事가 보인다.

(14) 「內賜老乞大諺解二本 康熙庚戌 陽坡鄭相國啓 令書閣鑛字所印行」

(15) 一寶國語學論集 p. 330. 「老乞大諺解」

後日로 미루린다. 다만 本稿에서는 諺解된 國語의 定本을 選擇함에 있어 奎章閣叢書 第九「老乞大諺解」로 하였으니, 이는 叔上의 問題解釋에도 一翼의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널리 알려진 것으로 함이 便하리라 생각한 點도 있다. 한편 方鍾鉉先生의 推定이 的中한다면 「蒙語老乞大」나 「清語老乞大」와도 거의 때를 같이 하게되는 利點이 있기도 하거니와, 逆으로 萬若에 後者들과의 形態論의 比較對照에서 年代的인 隔差가 드러날 경우는 再考를 必要로 하지 않을가 하는 一面을 노리는 셈도 된다.

「蒙語老乞大」의 刊行年代와 現存本에 대한 問題들은 일찌기 李基文 教授의 考證으로 分明해졌다.⁽¹⁶⁾ 現存의 奎章閣本과 東洋文庫本이 전혀 同一의 板本이며, 그것은 1790年 金孝彥 等에 의해서 重刊된 「蒙語老乞大」의 最後板本일 것임을 確實히 하여, 앞서 1766年 李億成의 改正本으로 推定했던 金芳漢 教授의 主張⁽¹⁷⁾을 修正케 하였던 것이다.

「蒙語老乞大」가 18世紀에 처음으로 印行되었는지에 대하여 現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方面의 資料만으로는 速斷할 수 없다. 다만 確實한 記錄의 典據를 찾을 수 있거나 現存하는 板本들의 刊行단은 分明히 18世紀에 들어 와서의 일이다.

이들 「蒙語老乞大」가 蒙學書의 主要書目으로, 비록 우리나라의 刊本이기는 하나 蒙古語學을 위한 貴重한 資料로 깊은 關心을 끌어 온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지마는⁽¹⁸⁾ 그 가운데의 國語關係資料에 대하여는 저이 關心 밖이어서 지금껏 이렇다 할 檢討가 이루어져 오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음에 提示할 「清語老乞大」와 더불어 어색할 것이 없는 마땅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 이들 가운데 反射된 國語의 性格을 미리 勘案하여 볼 때 興味로운 異例의 資料들이 收錄되어 있지 않을가 하는 期待를 두는 것도 헛된 일은 아닐 듯싶다. 오히려 「老乞大諺解」의 國語資料에 비해 보다 깊은 關心이 기울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清語老乞大」도 亦是 司譯院에서 主管하던 四學中 清學의 分野에서 이른바 滿洲語의 講書目的 하나였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의 刊行이나 現存本의 確실한 來歷에 대한 考證은 아직도 未盡한 것으로 안다. 일찌기 小倉進平氏에 의하여 推定되었던 바대로⁽¹⁹⁾ 「清語老乞大」와 「老乞大」, 그리고 「新編老乞大」가 同一板本の 異名에 不過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많은 疑問을 안고 있으며, 이에 並行하여 開板에 얽힌 여러 問題도 分明해진 狀況이 못 된다. 現在로서는 通文館志의 記錄⁽²⁰⁾에 根據를 둔 康熙癸未, 즉 肅宗 29年(1703)의 것을 初刊本으로 미루어 둘 수 밖에 없을 듯하며, 아직은 그 殘本의 消息이 杳연하여 그 內容 一切를 알 길이 없다. 뒤이어 箕營刊板의 「新釋清語老乞大」가 乾隆乙酉, 즉 英祖 30年(1765)에 刊行을 보았으

(16) 李基文:〈蒙語老乞大〉研究, 震檀學報, 第25, 6, 7合併號, 1964, pp. 371—374.

(17) 金芳漢:「奎章閣所藏〈蒙語老乞大〉의 刊行年代에 關하여」, 文理大學報 通卷 17號, 1962, p. 29.

(18) 李基文:〈蒙語老乞大〉研究, 震檀學報, 第25, 6, 7合併號, 1964.

(19) 小倉進平:增訂補注 朝鮮語學史, 1964, p. 628

(20) 「通文館志」卷八 什物 續附에 記錄은 다음과 같다. 「老乞大板 三譯總解板 小兒論板 八歲兒板 并監官李世萬等書康熙癸未 令清學官朴昌裕等六人捐財以活字開刊藏於該學」

니, 이것은 淸語訓長 金振夏의 修整한 것이었다. 現存本으로 傳하는 巴里東洋語學校藏의 「淸語老乞大」 8冊이 바로 이 刊行에 系하는 것이라고 閔泳珪 教授가 밝힌 바⁽²¹⁾ 있으며, 本稿에서도 이의 影印本을 資料로 採擇한다.

이 글이 指標로 하는 主된 目的이 刊行年代나 여러가지 板本の 相互關係를 積極的으로 究明하는데 있지 않음으로 若干의 疑問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려니와 이들 4種의 老乞大 즉 「老乞大」·「老乞大諺解」·「蒙語老乞大」·「淸語老乞大」들이 각각 어떤 것을 底本으로 하여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에 이르러는 一考를 要할 듯하다. 勿論 前述했듯이 漢語의 「老乞大」가 餘他の 것들에 斷然 앞서 原本의 구실을 하였을 것이라는 點에 대하여는 躊躇해지지 않는다. 問題는 나머지 세가지의 경우가 되겠지만, 亦是 「老乞大諺解」는 漢語의 「老乞大」를 바탕으로 하였음이 分명한 것이니, 結局은 「蒙語老乞大」와 「淸語老乞大」의 경우가 焦點이 되겠다. 이에 대하여 閔泳珪 教授는 蒙語나 淸語老乞大는 모두 單卷本 漢兒老乞大를 逐條翻譯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여 그 底本이 또한 「老乞大」임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하나의 경우를 豫想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疑問이 간다. 그것은 或是 지금은 烏有로 돌아갔지만 「翻譯老乞大」와 같은 當時 國語의 口語를 바탕으로 하여 蒙語 또는 淸語로 다시 옮기게 된 事實이 아닐까 하는 可能性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間接的으로는 前者의 「老乞大」와 關係가 있게 되지만 아무래도 漢語本을 底本으로 했다고 할 때는 「蒙語老乞大」나 「淸語老乞大」의 內容의인 體制로 보아 漢語本과 諺解本의 三者關係가 대단히 複雜하게 뒤얽힐 상싶다. 즉 最小限 漢語本에 依據하여 蒙語나 淸語로 翻譯이 이루어지고 然後에 다시 國語로 翻譯이 되어야 하는 節次가 不可避한 것이다. 萬若 後者の 경우로 미루어 볼 때는 이 가운데의 한 過程, 즉 國語로 다시 翻譯되는 節次가 있어야 할 理由는 當初부터 없는 것이 된다.

한편 漢語本을 逐條翻譯했다는 論據로 提示한 여러가지 理由⁽²²⁾도 亦是 諺解本을 翻譯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똑 같이 作用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現在로서는 斷定的인 見解를 가지기 어려울 듯하다.

以上 老乞大에 관계되는 여러 板本 가운데서 本稿를 作業하기 위해 必要한 몇가지를 概述해 왔다. 이와 같이 老乞大를 둘러싸고 생긴 錯綜한 性格은 端的으로 그때 그때의 우리 言語政策이나 生活을 反映한데 起因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總括的인 分析整理가 있어야 할 分野로 如前히 남아 있게 되었다.

(21) 閔泳珪: 「淸語老乞大」〈引言〉·人文科學, 第11輯, 1964. p. 113.

(22) 閔泳珪: 老乞大辯疑, 人文科學, 第12輯 1964. p. 203.

Ⅱ. 形態論의 分析和 記述

앞에서 말했듯이 「老乞大」類라고 한 것은 國語와 對譯形式의 體制로 이루어진 여러 種類의 老乞大 가운데 資料로서 손쉽게 接할 수 있는 것으로 採擇하였다. 우선 奎章閣叢書 第九의 「老乞大諺解」를 비롯하여 東洋文庫本の 「蒙語老乞大」⁽²⁴⁾ 그리고 巴里 東洋語學校藏 「清語老乞大」⁽²⁵⁾를 對象資料로 하였으니, 이들은 각각 特徵的인 性格을 가진 것들이다.⁽²⁶⁾

즉 같은 內容의 對話文을 漢語·蒙語·清語로써 主文을 삼고 이에 國語의 對譯文을 달고 있는 體制다. 結局 求心の 役割을 하는 內容과 言語는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國語가 圓心이 되어 있는 同心圓의 構造와 같은 것으로 比喩될 것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關係에 反射된 國語資料를 對照 比較하여 얻어지는 여러 特徵을 記述한다는 일은 이들 三者 사이에서나 可能的 唯一한 例가 될 상싶다.

한편 이들 資料의 言語的인 性格이 正確하게 刊行 當時의 國語이겠는가는 이들이 初刊本이 아닌 以上 斷定하기는 어렵겠으나, 이 三者가 모두 18世紀 後半의 刊本인 點도 이 作業에 보탬이 되는 條件이다. 특히 當代의 口語的 對話體라는 特性으로 미루어 이 資料의 個性이 뚜렷하니만 치 적잖이 興味를 가지게 된다.

1. 曲 用

가. 主 格

主格形은 中世國語의 경우와 別로 달라진 點이 찾아지지 않는 듯하다. 勿論 近代國語의 主格形에서 特徵的으로 記述되는 接尾辭 {-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基本的인 主格接尾辭는 {-이}임이 分明하며, 異形態素로서 {-이/- /- /- }와 같은 分布를 가지고 實現된다.

(가-1) 하늘이 어엿비 너기샤 <老諺上, 9>

하늘이 어엿비 너겨 <蒙老, 一, 14>

하늘이 에엿비 너겨 <清老, 一, 14>

(가-2) 이작되 드디 아니하니 <老諺上, 17>

이 斫刀 ㄱ 무되니 <蒙老, 一, 24>

(24) 이 板本은 「奎章閣本」과 전혀 同一한 板本이며, 1968年 當地에 머무른 機會가 있어 入手한 寫眞本을 여기 資料로 삼았다.

(25) 이것은 延世大 人文科學研究所刊 「人文科學」 第十一輯과 第十二輯, 兩次에 걸쳐 1964년에 影印된 바 있다.

(26) 本稿의 制限된 紙面관계도 있거니와 뜻하는 目的에도 큰 影響이 없을 것이기에 우선 「老乞大諺解」(上)만으로 採擇資料의 範圍를 限定했다. 便宜上 各 文獻의 書題를 다음과 같이 略稱하기로 한다.

「老乞大諺解」=〈老諺〉

「蒙語老乞大」=〈蒙老〉

「清語老乞大」=〈清老〉

이 작되 드지 아니하니 <淸老, 二, 1>

(가-3) 每日學長이 더 마래는 學生을다가 스승의 숲고 <老諺上, 6>

날마다 웃듬선비 저 사오나온 선비를 스승의 알외고 <蒙老, 一, 9>

저 사오나온 이를 날마다 웃듬선비 스승의 알외고 <淸老, 一, 9>

文例 (가-3)과 같은 用例는 音韻論的인 環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으나,

(가-4) 집의 밥 이시니 먹어든 가져 가라 <蒙老, 三, 6>

와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확실히 文法的인 것이며 一般的으로 複文構造의 從屬關係에 있는 成分에 흔히 나타나는 特徵임이 指摘된다. 아마 이러한 機能은 統辭上의 語列이 드러내는 素性的 하나로 理解될 상싶다.

한편 異例의으로 在格의 後置詞가 主格의 意味로 機能하는 例를 찾을 수 있다.

(가-5) 후의 다른 뒷 마을이 또 그 도적을 자바 <老諺上, 25>

後에 다른 구의에서 자바 <蒙老, 二, 13>

다른 곳으로서 그 盜賊을 자바 <淸老, 二, 16>

이 세 文例에서 {-이}, {-에서}, {-으로서} 間에는 각각 對應關係가 있게 되며, 서로는 交替가 可能하다. 이러한 素性的 共通되는 바탕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게 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重要할 것 같다.

本是 在格(adessive)이란 動作이 進行되고 展開되는 場所를 指示하는 格이다. 그러므로 이에 先行하는 體言은 넓은 意味의 場所의 性格을 띤 것이라야 한다. 指示된 處所가 動作의 主體가 될 때 바로 主格形과 對應하는 관계에 놓임을 알만 하다. 逆으로 본다면, 主格이라는 것도 處所指示와 系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의 例도 같은 論理的 類型으로서 {-이서}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가-6) 혼 나그네이서 전대에 혼 권 조히를 너허 <老諺上, 24>

혼 나그네 纏帶에 혼 卷 조히를 너허 <蒙老, 二, 11>

혼 나그네 纏帶에 혼 권 조히를 너허 <淸老, 二, 14>

勿論 {-이서}가 {이시-어}로 分析되는 構成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文脈에서는 그 機能이 거의 文法化되어 있는 段階이어서 實質的으로는 後置詞의 資格으로 格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다음의 用例도 注目할 만하다.

(가-7) 네 밥 먹기 먹차든 들호로호야 뭇 모라 게다가 노호라 <老諺上, 50>

너희 밥 먹거든 두 사름이 뭇 가져가 저기 노호라 <蒙老, 四, 1>

네 밥 먹거든 들히 뭇을 모라 저기 가져가 노호면 <淸老, 四, 6>

이들 세 文의 裏面에서 作用하는 이론 바 深層의 構造는 하나의 內容을 가진 것이 分明하다. 우리의 關心이 되어 있는 {-로호야}와 {-이}는 서로 對立하는 것 같지 않다. 勿論 相互間에는

交替가 可能하다. 表現의 樣式이나 統辭上에 관계가 다르다고 說明할런지도 모르겠으나, 위의 文例가 示唆하고 있는 意味를 멀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亦是 主格의 文法的 素性を 把握하는 데 크게 役割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用例에서는 處格과 主格의 接境現象과도 같은 意味가 發見된다.

(가-8) 出入이 平安치 아니하고 <老諺上, 49>

나며 들기 平安치 못하고 <蒙老, 三, 22>

出入에 平安치 못하고 <清老, 四, 5>

筆者는 現代國語의 主語를 記述하여 그 統辭關係를 副詞的인 것이라고 밝힌 일이 있었다.⁽²⁷⁾ 여기에 露出된 몇가지 事例들로 미루어 한 層 그러한 생각을 굳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具體的으로 處所指示의 素性和 對應되는 深層의 構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나. 屬 格

屬格形의 接屬辭에는 {-이/-의/-스}을 基本으로 한다. 그러나 先行母音의 系列에 條件되어 있던 異形態 {-이/-의}는 漸次 그 適應하는 힘이 弱化되면서 系를 벗어난 文例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1) 느민 것 해여 브리더 말라 <老諺上, 17>

놈의 거슬 놀 부러지게 말라 <清老, 二, 2>

(나-2) 사롬의 물깃기를 보아시되 <老諺上, 32>

사롬의 물깃기를 보아시나 <蒙老, 二, 27>

사롬의 물깃기를 보와시나 <清老, 二, 26>

當時의 狀況이 잘 나타난 例가 바로 (나-1)의 경우라고 한다면, (나-2)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傾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足하다. 즉 屬格接尾辭는 {-의}로 單純化되어 가는 線을 그리게 된다. 한편, 屬格의 경우도 異例의인 것이 記述된다.

(나-3) 뒤헤 방이 좁고 老少 | 쏘 만코 <老諺上, 47>

뒤히 房이 적고 老少 | 만코 <蒙老, 三, 19>

뒤 방이 좁고 老少 | 만호니 <清老, 三, 23>

이들은 分明히 두 名詞 <뒤>와 <방>의 統辭關係를 세 가지의 異形態로 나타내지고 있는 例다. 이 時期에도 이른 바 <h曲用>의 特徵이 남아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處格의 素성을 가진 接尾辭 {-에}가 屬格의 素性으로 統辭하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統辭의 誤用으로 處理하여 좋을 것 같지만 或是 複合形式으로 屬格形이 되어 온 {-엇}으로부터 由來한 것이 아닐지 궁금하다.

(27) 李承旭: 主語의 統辭에 關한 考察, 國文學論集(第三輯), 1969, pp. 25-35

(나-4) 스투낫돈엿 饅餅이오 <老諺上, 56>

우리 順城門의 官店을 향하야 브리오라 가자 <老諺上, 10>

{-에}가 用言과의 統辭關係에서 副詞格이 된 一般的인 性格이거나 여기에 {-스}이 複合되어 體言과의 統辭關係로 그 性格이 轉成됨으로서 結局은 屬格形의 類型을 이룬다. 所謂 사잇소리 {-스}은 本是 屬格形의 接尾辭다.

(나-5) 언머는 高麗스 사롬고 <老諺上, 6>

朝鮮 사롬은 언단노 <蒙老, 一, 9>

本稿에서 採擇하고 있는 資料를 통틀어 <老諺>에서는 대단히 頻頻하게 쓰이고 있는 屬格의 接尾辭 {-스}이 나머지 두 文獻의 경향은 이와 달리 두 體言을 並置시킴으로써 作用하는 語列의 素性으로 統辭를 지우는 傾向이 優勢하다. 分明히 이러한 것도 文法史的인 이 時期의 性格을 理解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한다.

以上 屬格接尾辭는 {-의}/-의/-스/-엿/-에} 등으로 分析되며, 여기에 語順에 의한 列素를 더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다. 處 格

處格은 이 時期에 있어서는 대단히 多樣的 接尾辭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우선 基本的인 接尾辭로는 {-에}와 {-의}가 指摘된다. 勿論 {-애}와 {-이}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異形態로서의 適應力이 顯著히 減退되어 既往의 秩序를 維持할 수 없게 된 狀況이 如實히 나타난다. 이러한 狀況下에 새로운 秩序를 찾는 實驗的인 亂脈이 露呈되고 있는 것도 이 時期의 特徵이라 할 것 같다.

(다-1) 훈 사슬통에 담아 덕일 선빅하여 사슬통 가져다가 혼드려 <老諺上, 3>

훈 사슬통에 다마 檢舉하는 선빅로 사슬통 혼들려 <蒙老, 一, 5>

훈 사슬통에 담고 檢舉하는 선빅 사슬통 가져와 혼드려 <淸老, 一, 5>

前項의 文例 (나-1)에도 드러났지만 <老諺>과 나머지 두 文獻에 反射된 國語의 性格에는 確實히 通時的인 距離感 같은 것을 가지게 한다. 이들 세 文獻의 刊行年代로 미루어 볼 때는 선뜻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性向은 앞으로의 各項에서도 繼續 注目해 볼만한 일이다.

音韻的인 制約이 奏效하지 않는 段階에서 {-애}와 {-에}는 任意로 交替可能하며 言衆의 慣用으로 어느 하나를 擇하게 마련이다. 屬格의 경우 {-의}가 優勢를 보였듯이 處格接尾辭로는 {-에}가 採擇된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系列을 이루고 있던 {-의}/-의}에서 歸着된 {-의}와 더불어 並用된다. 그러나 오히려 屬格으로부터 轉用된 {-의}쪽이 그 使用頻度로 보아 優勢한 傾向을 그리고 있는 點은 特記할 일이다.

(다-2) 우리 그저 뒷동산의 가 뒤보기 도리 아니 하랴 <老諺上, 33>

우리 그저 뒷되힌 가 똥누미 엇더노 <蒙老二, 25>

우리 뒷되에 가서 똥누미 엇더 하노 <清老, 三2>

이렇듯이 同質의 音韻環境 사이에서 {-의/-의/-에(예)} 따위로 亂脈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거니와,

(다-3) 이 술윗방의 잘 더 하여 이시라 <老諺上, 50>

이 술윗집의 잘 똥을 다스리라 <蒙老, 三, 23>

이 술윗집의 잘 똥을 출호라 <清老, 四, 5>

에서는 뚜렷한 單一化 傾向이 드러나기도 하지마는,

(다-4) 漢人 짜히 니기 든니디 못하엿노니 <老諺, 7>

漢 짜히 길히 녀지 못하니 <蒙老, 一, 10>

漢 짜히 든니기 녀지 못하니 <清老一, 10>

와 같이도 實現되어, (다-1), (다-2)의 <老諺> 文例를 對照하여 보면 <사술통에/뒷동산의/짜히> 와 같은 것으로서 同一文獻의 言語資料 안에서도 甚한 亂脈을 빚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이들은 허물어진 安定의 基盤을 되찾으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여러 모로 試圖한다. 그리하여 다음 文例와 같은 이 時期의 模型을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5) 아춤의 똥은 것 먹으니 저기 목똥룩다 <老諺上, 56>

아춤에 똥은 것 먹음으로 저기 목똥룩다 <蒙老, 四, 9>

오늘 아춤에 똥은 것 먹었기로 그저 목똥룩다 <清老, 四, 15>

處格에도 異例의인 接尾辭는 몇가지 나타난다.

(다-6) 그 사람이 원 녀 폴독에 살 마자 상하엿고 <老諺上, 27>

원녀 폴에 살 마자 傷하야시나 <蒙老, 二, 15>

그 사람이 원녀 폴인 살에 마자 傷하어시나 <清老, 二, 19>

이 文例는 우리에게 껍이나 興味로운 暗示를 던져 주는 양하다. 動作의 主體나 對象間의 關係를 支配하는 論理의 內在性이 格接尾辭보다 優位에서 包括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形態素의 特徵的인 素性에 不拘하고 內在的인 秩序가 維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에}와 對應되는 各項에 대하여 假想할 수 있는 最大限의 것은 {-이}, {-을}, {-로} 따위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上記例中 <老諺>의 경우 假想할 수 있는 <폴독에 살에>에서 重複된 {-에}는 전혀 同値의 意味로 實現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에는 <蒙老>나 <清老>에서의 같이 다른 格接尾辭로 代置시킬 수 있는 許容度가 있는 것이다. 勿論 이럴 때의 許容度라 하는 것은 이들 格이 가지는 文法的인 意義素의 同質性에 의해 說明되는 格의 相關性이라 할 수 있다.⁽²⁸⁾

(28) cf. 李承旭: 格의 相關性에 대하여, 國文學論集(第4輯), 1970, pp. 3~20

{-에}와 {-이}에 관해서는 文例(가-8)에서 示唆된 바가 있거니와 {-에}와 {-을}의 관계는,

(다-7) 村에 다도디 못하코 <老諺上, 9>

村에 밋지 못하코 <蒙老, 一, 13>

村을 밋지 못하코 <淸老, 一, 13>

그리고, {-에}와 {-로}의 用例는

(다-8) 밋아 네 콩을 건져 내여다가 촌물에 것터 <老諺上, 21>

번아 네 콩을 건져 촌물로 씨서 <蒙老, 二, 7>

밋들아 네 콩을 건져 가져와 촌물에 치오고 <淸老, 二, 9>

와 같이 (다-6)을 補充해 볼 수 있다. 格의 素性을 正確하게 記述하고 格을 相關的對立體系로 把握하려는 立場에서는 앞으로 깊이 吟味할 問題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處格의 경우에 있어서도 先行體言의 語彙項目 속에 處所의 意味를 含有하고 있을 때는 그 自體만으로도 處格에 相當하는 구실을 한다.

(다-9) 네 서울—므슴 일 이서 가는다 <老諺上, 7>

네 서울—므슴 일로 가는다 <蒙老, 二, 一, 10>

네 皇城에 므슴 일 이서 가는다 <淸老, 一, 10>

라. 對 格

當時의 對格接尾辭는 前代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異形態 사이의 서로 拘束하던 制約이 풀리므로 해서 일어나는 現象같은 것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對格은 接尾辭 {-을/—을, -를/—를, -리}로 表示된다. 한편 다음의 예와 같이 文脈의 意味로 規制되는 統辭의 機能으로 對格이 表示되기도 한다.

(라-1) 하눌히 마되라 田禾를 거두디 못하니 <老諺上, 24>

하눌이 마되라 밭穀食을 거두지 못하야 <蒙老, 二, 10>

하눌이 마물매 밭곡식— 거두지 못하야 <淸老, 二, 13>

다른 格과의 關聯性에 있어서는 우선 文例(다-7)에서 處格과의 交替關係를 指摘하였거니와 이제 다음 몇가지의 경우를 들어 본다.

(라-2) 네 밋피여 온 밭에서 나를 저기 노닐워 주고려 <老諺上, 48>

네 밋고와 둔 밭을 우리게 적이 주라 <蒙老, 三, 21>

네 밋고와 가져 온 밭을 우리게 적이 더러 다고 <淸老, 四, 3>

在格의 後置詞 {-에서}가 主格과 관계하는 일에 대하여는 이미 (가-5)에서 詳考해보았다. 다시 여기에서는 對格과 對應하는 意味의 包容을 찾게 하는 것으로 注目을 끈다. 한편 이것은 反對쪽에서 볼 때 對格形이 이끌고 있는 意味의 包容이 對格 本然의 것은 勿論이거니와 그 밖의

周邊의인 同質의 것과 對應하는 넓이에 걸쳐져 있다고 풀이되기도 한다.

위의 文例에서 또 하나의 對應이 記述된다. 즉 與格接尾辭 {-게}와의 交替現象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亦是 거듭 說明해 온 關係形式으로 充分히 理解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對應되는 各項의 것을 上記例 中 <老諺>의 것에 代入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最大限의 可能的 假想된 文을 얻는다.

- i) 네 밭피여 온 밭에서 나를 저기 노닐워 주고려
- ii) 네 밭피여 온 밭에서 내게 저기 노닐워 주고려
- iii) 네 밭피여 온 밭을 내게 저기 노닐워 주고려
- iv) 네 밭피여 온 밭을 나를 저기 노닐워 주고려

비록 假想된 文이라고는 하였으나, 通用의 論理性이 缺如됨이 없는 完全한 것이다. <밭>과 <나>는 각각 敘述動詞 <주고려>에 統辭하는 一定의 格을 갖는다. 그러나 그 形式은 모두 對格形을 取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결코 {-에서}와 {-게}는 先行體言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矛盾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實은 같은 對格形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支配하는 敘述動詞에 관계하는 領域은 分明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秩序가 自然스럽게 理解된다. 다만 對格形이 統括하는 領域은 意外로 넓은 것임을 알게 된다.

다음의 例들은 위의 根據를 더욱 굳혀 주는 것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라-3) 네 이의 北京을 향하야 잘작시면 <老諺上, 7>
 네 임의 北京으로 向하야 가려 하면 <蒙老, 一, 10>
 네 괴이 皇城으로 向하야 가면 <淸老, 一, 9>
- (라-4) 우리로하야 하룻밤만 재라 <老諺上, 44>
 우리를 하룻밤만 재라 <蒙老, 三, 16>
 우리를 하룻밤만 재오라 <淸老, 三, 19>

(라-3)은 對格과 向進格으로 구실하는 {-로}와의 관계이며, (라-4)는 (가-7)에서 例示했듯이 主格과도 對應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後置詞 {-로하야}와의 關係가 表示된 例다.

무릇 하나의 格이 이와 같이 多邊의인 接觸點을 包容하고 있는 機能의 負擔은 얼핏 格의 未分化狀態를 드러내고 있는 印象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서 起因된 것이라고만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보다도 共時的인 立場에 서서 보는 限, 이러한 負擔量의 實現이 可能해지는 것은 서로 支配하거나 支配를 당하는 形式間에 있어 各項의 一般的인 語彙項目에 의하여 統制되는 論理의 軌道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見解가 現實에 符合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立場은 각각의 格이 가지고 있는 實質의인 機能의 負擔量을 測定하는 問題에도 直接的으로 關聯된다. 結局, 이제까지의 여러 경우를 通하여 한 格이 負擔하는 相關的機能의 量은

意外로 많은 것으로 記述되었다. 이렇게 많은 負擔量을 가진 어떤 한 格接尾辭가 주어진 자리에서 제 구실을 찾아 嫁動하게 되는 힘은 결코 格接尾辭만의 單獨의 것이 아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格接尾辭에 前接되는 體言의 語彙項目과 叙述用言의 그것 사이에서 經驗의으로 얻어지는 論理의 힘과 더불어 選擇되고 嫁動되는 힘인 것이다. 이런 理由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側面으로서 上述해 온 여러 格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對格의 경우도 格接尾辭를 가지지 않은 對格形이 容認될 수 있는 것이다.

(라-5) 하늘이 마마라 田禾를 거두지 못하니 <老諺上, 24>

하늘이 마마라 밋穀食을 거두지 못하야 <蒙老, 二, 10>

하늘이 마물매 밋곡식 거두지 못하여 <清老, 二, 13>

한편 對格形이 가지고 있는 負擔量의 領域 밖에서 서로 排他的인 關係에 있는 格形式으로 바뀌어 놓을 경우에는 必然的으로 이것을 支配하는 部位에도 어떠한 變化를 일으킨다.

(라-6) 귀훈 곳은 서너돈 은을 쓰고 <老諺上, 11>

귀훈 곳이면 서너돈 銀이 쓰이고 <蒙老, 一, 16>

이 경우는 對格이 主格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叙述用言이 被動態로 되어야만 하는 예다. 한편

(라-7) 우리 집과 콩과 골를 다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老諺上, 21>

우리 집과 콩과 골리 다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清老, 二, 8>

이 경우도 形式上에는 (라-6)의 것과 同類의 것이지만 一見 叙述部에는 아무런 變化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內面的으로는 큰 變化가 일어났으니, <골를>이 統辭하는 叙述用言은 <사-ㄴ>일 것이 分명한데 이를 <골리>로 바꿈으로써 해서 이것이 統辭하는 叙述部는 <것-이니>쪽으로 推移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무런 影響을 끼치지 않고 交替가 可能했던 文例와는 전혀 異質의인 것임이 確實하다.

마. 與 格

가장 一般的인 與格形은 後置詞 {-의게}로 表示된다.

(마-1) 우리 네 사름의게 설흔 낫돈엿 羊肉을 복고 스므낫돈엿 燒餅을 가져오라 <老諺上, 55>

우리 네 사름의게 설흔낫돈에 炒호羊肉과 스무낫돈에 구운 떡을 가져 오라 <蒙老, 四, 8>

與格은 本是 固有한 接尾辭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으며, 몇가지 定해진 後置詞와의 關係를 가지고 表示되어 왔다. {-의게}도 그 中の 하나이려니와 다음의 文例에서는 {-드려}를 確認할 수가 있다.

(마-2) 내 너드려 저기 말 무로리라 <老諺上, 23>

내 너게 무를 말이 잇다 <蒙老, 二, 9>

내 너드려 므물 말이 잇다 <清老, 二, 12>

여기 {-게}는 흔히 屬格接尾辭 {-이/-의}를 前接한 形式으로 實現되어 온 것이며, {-더러}는 對格接尾辭 {-리}를 前接한 形式이었다. 그리고 이 兩者는 각각 그것이 適應하는 限界가 前置된 體言의 意味範疇에 의하거나 또는 與格形으로서, 統辭하는 敘述動詞의 意味範疇에 의하여 區分되어진다. 前置되는 體言의 意味範疇과 같은 原則의으로 與格이 許容되는 對象은 有情物이며 이 가운데서 再分類한 範疇의 것을 가리킨다. {-의게}의 경우는 모든 有情物에게 凡用되어서 좋지만 {-더러}의 경우는 動作의 受容能力이 있는 一部の 動物에 限定된다. 敘述動詞과의 관계는 이들의 條件보다도 훨씬 강한 制約을 준다. 이 때에도 {-더러} 보다는 {-의게}가 廣範圍하게 쓰인다. 文例(마-2)만 보더라도 {-더러}를 {-게}로 代置하여 無妨하지만 (마-1)의 {-의게}를 {-더러}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임을 안다. 여기서는 다만 皮相的인 몇가지를 밝히는 程度로 머물러 두려니와, 다음의 文例에서 또 하나의 與格形을 찾을 수가 있다.

(마-3) 내 漢사들의손터 글비호니 <老諺上, 2>

내 본터 漢사들의게 글비화심으로 <清老, 一, 2>

이 {-손터}도 {-게}가 그러했듯이 屬格接尾辭 {-이/-의}를 前接한 形式으로 表示되었던 것이며, 그 適應하는 관계도 그에 準하는 듯하다. 그러나 先行시키는 體言의 限界는 特徵의이어서 {-더러}보다도 좁은 限定的인 것, 즉 사람에 限하여 可能해지는 것이다.

한편, <老諺>과 나머지 두 文獻에 쓰인 用例를 볼 때, {-더러}形도 그렇지만, 특히 이 {-손터}形은 前者의 경우에 比하여 後者에서는 거의 그 用例를 얻지 못하는 形便임이 指摘된다. 그리고 與格도 特定の 形式이 없이 주어진 文脈에서 與格形이 되는 일은 亦是 앞의 다른 格들과 系를 같이 한다.

(마-4) 나그네들_ 주어 먹게 호라 <老諺上, 36>

손들의게 주라 <蒙老, 三, 4>

나그네 들의게 드리라 <清老, 三, 7>

특히 與格에는 {-의}로서 表示되는 尊待의 形式이 있다.

(마-5)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비호고 <老諺上, 2>

學堂에 가서 스승의 글비호고 <清老, 二, 3>

다음은 다른 格과의 關係를 살펴 그 素性을 밝혀 본다.

(마-6) 내 다 더를 주마 <老諺上, 21>

내 다 저의게 주자 <蒙老, 二, 6>

내 다 저의게 주마 <清老, 二, 9>

때로는 與格形이 對格形으로 統括되어진다는 特徵을 알리는 例로서 그리 드문 例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라-2)에서 그 一端을 例示하여 說明했거니와, 이들의 關係는 서로 對等한

資質로서 交替되는 것이 아니다.

本然의 與格意味를 가지고 쓰인 {-의게}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對格의 {-를}과 交替될 수 있지만 이 逆의 경우는 不可能하다. 즉 對格形이 與格形을 包有할 수는 있어도 與格形이 對格形을 包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對格이 負擔하고 있는 機能의 質과 量은 與格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文例는 結局 (라-2)를 돕는 것 밖에는 別意味가 없다. 다음은 異例의인 것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마-7) 네 은을 아디 못하거든 다른 사람^{하여} 보라 <老諺上, 58>

네 銀을 아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게 보라 <蒙老, 四, 13>

네 銀을 아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게 보라 <淸老, 四, 20>

이 {-하여}는 앞의 (가-7)과 (라-4)에서는 {-로하여}의 形式으로 각각 主格과 對格의 機能을 負擔하고 實現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分明히 與格의 意味를 띤다. 勿論 {-하여}가 語源的으로 語彙項目的 意味를 지녔던 {하-여}임은 自明하다. 그러므로 {-로-하여}의 形式은 이로 해서 그 合理性을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期間의 여러가지 原因에 의하여 그 意味가 退化되고 形式化되어지게 되면, 마침내 後置詞와 같은 性格으로 굳혀진다. 이런 段階에서는 上記 文例와 같이 {-로}를 除外하고도 機能이 運營된다. 이러한 變化의 過程이 容認됨으로 해서, 비로소 이 形式이 지니고 있는 機能의 多様な 負擔을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²⁹⁾ 따라서 {-하여}는 後置辭의 資質이 賦與되어 있으나, 特定の 格으로 化石화된 段階는 아니다. 여러가지로 實驗되고 있는 狀況의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特記해 둘 일은 이런 類型의 것이 頻煩히 쓰이고 있는 경향은 이들 文獻의 言語의인 性格이 口語인데 起因하며, 多角的인 實驗狀況이 直射되는 것도, 亦是 口語의 特徵이니 서로는 符合되는 面을 드러낸다. 後置詞로서의 形成에 있어 이와 系를 같이하는 (마-2)에서의 {-느려}는 이에 比해 훨씬 그 文法的인 個性이 뚜렷하다.

바. 造 格

造格은 接尾辭 {-로}에 의하여 表示된다. 音韻의 環境에 따라 媒介母音 {-으/으-}를 가지는 것은 勿論이지만 交替의 規則性은 애매하다. 漸次 {-으-}로 統合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바-1) 더귀 우물은 다 돌로 무은 거시라 <老諺上, 32>

여귀 우물은 벽^{으로} 판 우물이니 <蒙老, 三, 23>

저귀 우물은 다 돌로 쓴 거시니 <淸老, 三, 1>

그런데, 이 造格形이 負擔하는 意味機能의 領域은 대단히 넓다. 上記例는 어떠한 動作을 이 루는데 쓰이는 材料를 指示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계가 指示된다.

(29) 「訓民正音」序文 가운데의 <사물마다 히여 수비 니겨>에 쓰인 <히여>만 하더라도 이런 側面에서 풀이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이러한 用例는 일찍부터의 일인 것으로 推定된다.

(바-2) 그저 줄드레로 물을 깃느니라 <老諺上, 28>

줄드레로 물을 깃느니 <蒙老, 二, 17>

줄드레로 물을 깃고 <清老, 二, 20>

이것은 어떤 動作을 하기 위해 쓰이는 器具를 가리킨다. 더우기 다음의 文例를 미루어 보면 한 層 그 뜻의 纖細한 面을 찾을 것 같다.

(바-3) 벗아 네 콩을 진내여다가 촌물에 깃터 <老諺上, 21>

벗아 네 콩을 진져 촌물로 빚서 <蒙老, 二, 7>

벗들아 네 콩을 진져 가져 와 촌물에 치오고 <清老, 三, 9>

이 글월에서 推定되는 관계는 <너>와 <콩>, 그리고 <촌물> 등이 行動에 미치는 여러 관계가 豫想된다. 여기서 <너>는 行動의 主體이며, <콩>은 對象物, 그리고 <촌물>은 그 方法의 관계로서 統辭한다. 이 때 接尾辭 {-로}는 {-에}와는 달리 行動의 方法을 指示하는 意味機能을 나타내는데 適合하다. 즉, {-에}가 處所指示의 周邊의인 것인데 대하여 {-로}는 <어떻게>라는 方法的인 것의 指示다.

다음의 例는 이러한 內容을 더욱 鮮明하게 해 주는 것이 되리라 믿는다.

(바-4) 므스 거스로 딤 가져 가로 <老諺上, 29>

무어서 집을 가져 가리오 <蒙老, 二, 19>

무어새 여물을 가져 가리오 <清老, 二, 22>

以上 處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의 (다-8)에서 提起했거니와 形態論의 相互交替가 可能하기는 하나 文法的 素性は 서로 다르게 記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結局, 範疇上으로 볼 때는 (바-2)와 同類라 하여도 矛盾은 없겠다.

그러나 一般의 體言의 意味가 抽象性을 더하면 더할수록 {-로}가 指示하는 素性は 점점 그 個性을 잃어버린다. 그런 結果 <體言+{-로}>의 形式을 띤 많은 副詞을 派生시키게 된다.⁽³⁰⁾

다음은 {-로}가 方向을 指示하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다.

(바-5) 또 人家로 드러가 밥 어더 먹으리라 <老諺上, 39>

또 님의 집 向_하야 가서 밥 어더 먹느니라 <蒙老, 三, 8>

또 사름의 집의 가서 밥을 비러 먹느니라 <清老, 三, 12>

<老諺>의 <人家로>가 <蒙老>에는 <님의 집 向_하야>로 表現된 것으로 미루어 {-로}의 素性을 向進으로 意識했던 것을 알 수 있는 同時에 別途의 接尾辭 없이도 구실에 支障이 없음을 알겠다. 處格과의 관계는 앞에서 言及을 했거니와, 한편 對格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3)

또 하나의 傾向은 {-로~서}나 {-로~하_여}와 같은 形式에서 後置詞 {-로서}나 {-로하_여}로

(30) 이런 類型의 것은 대단히 生産的이었다. <훈가저로 진실로, 건축로……>등.

固定되어 가는 것이指摘된다.

사. 共 同 格

共同格의 接尾辭는 {-과/-와}다. 前代의 것과 다를 바 없으나, 이들 異形態가 交替되는 音韻環境의 條件은 다르다. 즉 先行音이 {-ㄹ}일 경우에도 다른 子音의 경우와 같이 {-과}가 採擇된다.

(사-1) 漢人선비들과 혼더서 글비혼니 <老諺上, 5>

漢선비들과 혼 곳에이서 글비혼 緣故로 <蒙老, 一, 8>

漢선비과 혼더이서 글비혼 緣故로 <清老, 一, 8>

이 때의 {-과}가 指示하는 意味는 共同格 本然의 것이 된다. 즉 同伴 또는 共同을 表示한다. 한편 이 格接尾辭가 그대로 比較格의 자리에 온다.

(사-2) 아리과 비컨대 마장 도타 <老諺上, 35>

前써세 비하면 마장 도타 <蒙老, 三, 1>

以前 거세 비하면 마장 조타 <清老, 三, 5>

이 {-과}는 分明히 比較關係를 表示한다.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의 興味를 돋구는 것은 處格接尾辭 {-에}가 이 連環 속에서 交替되는 事實이다. 換言해서 處格形이 比較格으로도 쓰이는 事實이다. 勿論 여기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共同格의 指向의인 素性을 理解하는 데는 이러한 關聯性이 말해주는 裏面이 크게 도울 것으로 믿는다.

여러가지 言語形式의 統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連環속에서 格이 機能하는 素性을 이루어내는 與件은 우선 다음 몇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言語形式의 構成面에 形態論의인 特徵이 나타나 있음으로써 形式 相互間의 辨別의素性이 뚜렷해진다. 이것은 여러 階層의 言語單位들이 갖추어야 할 外的形式으로서 最小의 基本的要件이기도 하다.

무릇 素性의 固有性을 지키며 正確한 機能을 期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形式이 하나의 機能으로 運用됨이 理想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一形式 一機能의 理想을 實際의 言語現實에 具現하기는 至難한 일이다. 그것의 큰 理由는 機能의 錯綜性에 있다. 形式이 미쳐 機能의 分化를 堪當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機能이 언제나 停滯되어 있을 수는 없다. 그리하여 不得不 한 形式은 抽象化되고 類型의 機能을 概括하는 다음의 與件이 要求되는 것이다.

두째로, 言語形式의 具體의인 機能은 文脈의意味의 連環 속에서 制限되고 採擇된다. 形態와 機能은 서로 相對的인 관계에 있다. 聯合은 恣意的關係에서 緣由했다고 할지 모르나, 어떤 形態에 어떤 機能이 聯合하는 過程에서 豫想되는 여러 問題는 單純한 것이 아니려니와 한 形態가 같은 類型의 여러 機能을 負擔하게 된다는가, 혹은 하나의 機能을 몇가지 形態가 運用하게 되

는 일은 文의 連環에서 벗어나 單獨으로 있는 狀況으로는 理解되기 어렵다. 勿論 이것은 前項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機能의 分化, 或은 形態의 抽象化같은 一連의 變化와 더불어 不可避한 言語運用의 方便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여러 機能 가운데서 그것의 心理的類型을 가리어 分母로 設定하고 이에 一定한 形態를 配當하는 傾向과, 또 하나의 形態間의 對應에서 排他的 關係에 있지 않은 것끼리를 相互 交替함으로서 資料의 領域을 넓히는 現象으로 크게 나누어질 듯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實態는 前述한 여러 格의 文例에서 確認되어 온 바다.

그러므로 어느 形態가 어떤 機能으로 或은 어느 機能이 어떤 形態로 實現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 그들의 類型性으로 묶어진 共通分母의 基盤위에서 恣意的으로 選擇되고 그 確定은 文脈의 意味의 連環이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特定の 機能을 擔當하게 되는 別項의 形態들은 서로 無關한 것이 아니라 一致가 아니면 자기 意味領域의 相當한 部分에 共通性을 가지게 된다는 論理에 이른다.

上記例의 {-과}와 {-에}의 對應에서도 亦是 歸着되는 點은 이러한 데 있을 것이다. 한편 다음의 文例에서는 {-과}와 {-에서}의 對應이 엿보인다.

(사-3) 우리 예과 비컨대 호가지로 엄하여 <老諺上, 46>

우리 이곳에서 더욱 嚴호모로 <蒙老, 三, 18>

여기에서 또 嚴하여 <清老, 三, 22>

이 {-에서}는 비단 比較格으로 表示된 {-라}와의 관계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主格과의 관계(가-5), 그리고 對格과의 관계(라-2)에도 걸쳐 있는 事實임을 앞에서 살폈다. 이것만 보더라도 後置詞 {-에서}는 主格, 對格, 比較格으로서의 指示機能을 含有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다른 格의 경우와 같이 體言의 基本形을 列記하는 것만으로서 共同格의 役割을 떠우게 된다.

(사-4) 우리 손조 밥지어 먹으면 가마와 노고자리와 사발 접시 다 잇느냐 <老諺上, 61>

이러면 솥과 노고과 사발 접시 다 잇느냐 <蒙老, 四, 17>

우리 밥지어 먹으려니와 가마_노고_아리쇠_사발_접시 다 잇느냐. <清老, 四, 25>

亦是 文脈의인 意味의 素性으로 말미암은 統辭關係라 하겠으며, 이와 同一한 語列의 構成을 가지면서도 다르게 관계하는 것으로는 屬格의 例(나-5)가 있다. 이 두가지 機能사이 어떻게 記述될 것인가 하는 問題도 詳考해 볼 일이겠으나 다른 機會로 미루려 한다.

아. 呼 格

呼格 接尾辭의 基本的인 것은 {-아(야)}로 表示된다.

(아-1) 술 풀리야 스므낫돈엿 술을 가져오라 <老諺上, 56>

술 꼭논 사롬^아 스프낏돈에 술을 가져 오라 <蒙老, 四, 10>

술 꼭논 사롬^아 여긔 오라 우리게 두든 쓴 술을 부어 가져 오라 <淸老, 四, 16>

呼格의 경우, 特記한 事實은 敬語法과 呼應關係에서 쓰이던 接尾辭 {-하}가 전혀 찾을 수 없는 일이다. 敬語法에 대하여는 <老乞大>의 文獻的인 特色이 있는 것도 같다. 그 細部의 考察은 다음 活用項에 미루려니와 全般에 걸쳐 敬語意識이 거의 없는 平板한 文으로 되어 있다. 或是 그러한 性格에 原因된 것일런지 速斷할 수는 없으나, {-하}의 痕跡은 없다. 한편 呼格의 경우도 亦是 體言의 基本形만으로도 呼格形을 이루는 例를 볼 수 있다.

(아-2) 나그네들_ 허를 말라 <老諺上, 49>

손들^아 怒^하야 말라 <蒙老, 三, 21>

나그네들_ 허를 말라 <淸老, 四, 4>

以上 세 文獻의 國語資料에 露呈되어 있는 格形式의 主要項目을 간추려 그 實態의 斷層을 理解해 보려고 努力해 왔다. 全般의으로 各項에 共通되는 몇 가지 特性이 찾아지는데,

첫째로, 모든 項目에서 Zero形式의 機能負擔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點이 指摘되며,

두째로는, 各 格의 固有形式의 '不安定性'이다. 形態論上의 漂流같은 狀況은 且置하고 意味機能의 指示領域에 큰 動搖가 일고 있음을 알게 하는 交替形式이 매우 多樣하게 露出되었다.

한편, 個別項의 特性으로 與格의 接尾辭는 없으며, 後置詞가 이에 구실하고 있는 點 등 몇가지가 提起될 수 있겠으나, 總括하여 다음의 表로 매듭해 두고져 한다.

格	形 式	基 本 形 式		交 替 形 式		備 考
		接 尾 辭	後 置 詞	接 尾 辭	後 置 詞	
主 屬 處 對 與 造 共 呼	格	이(1)		에, ϕ	에서, 로서, 이서, 로 ^하 여	(가-1~8)
	格	이/의, 入		엇/잇, ϕ		(나-1~5)
	格	애/에(에), 이/의		을/를, 로, ϕ		(다-1~8)
	格	을/를, 을/를		게, 로, ϕ	에서, 로 ^하 여	(라-1~7)
	格		의게, 드려, 의손덕, 의	을/를 ϕ	하 ^여	(마-1~7)
	格	로(으로/으로)		애, 에, 의, ϕ		(바-1~5)
同	格	과/와		에, ϕ	에서	(사-1~4)
	格	아(아)		ϕ		(아-1~2)

자. 特殊曲用

普遍的인 曲用形式의 範疇를 벗어난 曲用이 몇가지 나타난다. 이들은 이미 15世紀國語의 特徵인 것으로 記述된 것들에 不過하지만, 그나마 制限시킨 範圍의 資料에서는 全體의인 輪廓을 밝힐 수가 없다. 다만 暗示的인 一角의 殘痕을 드러내는데 그치려 한다.

첫째로, 이른 바 <h曲用>의 特徵은 相當한 語彙의 경우 尙存해 있다.

(자-1) 漢人자한 니기 든니디 못하엿노니 <老諺上, 7>

漢人한 길한 넉지 못하니 <蒙老, 一, 10>

漢人한 든니기 넉지 못하니 <清老, 一, 10>

(자-2) 나그내들한 다른 터 부리오디 아니하고 <老諺上, 10>

나그너들한 다른 터 부리오지 아니하고 <蒙老, 一, 15>

나그너들한 다른 터 부리오지 아니하고 <清老, 一, 15>

(자-1)과는 달리 (자-2)의 文例 가운데서는 {-ㅎ-}의 消失이 엿보인다. 이 時期의 이러한 狀況은 各 語彙가 가지는 擬古의인 保守性和 現象의인 事實性이 엇갈린 過渡期的인 일로 理解된다. 다음과 같은 것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굳히는 것이 될 듯 하다.

(자-3) 전년보터 하날한 마되라 <老諺上, 24>

전년부터 하날한 마되라 <蒙老, 二, 10>

前年부터 하날한 마들매 <清老, 二, 13>

하날한 어엿비 넉기사 <老諺上, 9>

이들의 가지는 保守性을 測定할 客觀的인 基準이 따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가령,

(자-4) 드레 우한 훈 덩이 벽을 되라 <老諺上, 29>

드레 우한 훈 벽을 노호라 <蒙老, 二, 18>

드레 우한 훈 덩이 들을 되라 <清老, 二, 21>

와 같이 <우>의 경우는 徹底했던 것 같으며,

(자-5) 이 되릿 보와 기동이 아리과 전조면 너모 굿다 <老諺上, 35>

이 되리 보와 기동이 前써시서 마장 굿으니 <蒙老, 三, 2>

들보 기동도 전의서 만히 실하니 <清老, 三, 5>

의 경우는 例가 많지 않은 點도 있으나, 전혀 {-ㅎ-}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事實上 <h曲用>은 그 義務性的 實效를 거둘 수 없이 된 段階에 이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로 미루어 이른 바 <k曲用>의 경우도 같은 흐름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주어진 資料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한편 名詞語幹이 <-ㄷ>形式으로 되어 있을 경우의 一部 變則에 대한 것도 網羅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例로 미루어 아직도 그 有效性이 있음을 알 듯 하다.

(자-6) 네 되른 서근 마르는 每斤에 열랏돈식 하니 <老諺上, 20>

우리 넉과 콩과 돌들 다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老諺上, 21>

우리 집과 콩과 콜놀 다 네 집의 와 사시니 <蒙老, 二, 6>

우리 집과 콩과 콜리 다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清老, 二, 8>

이와 系를 같이 하는 것으로 前代에서는 記述되었던 類型 <-스>形式의 것들에 대하여는 그 文例가 찾아지지 않는다.

2. 活 用

<老乞大>類에 反射된 國語資料의 한 特徵으로 이 文獻들이 意圖하는 目的에 副應된 것이기도 하지만 特定の 生活 가운데서 必要로 하는 對話體의 口語文이라는 것이 指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性格은 文의 여러 段階를 分析하여 얻어지는 特徵의인 形式을 根據로 하여 確認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果然 이들 文獻의 資料만으로서 口語의 徹底한 面을 살필 수 있을지는 疑問스러우나 比較的 多様な 表層이 露出된다는 點만은 注目할 만하다. 特히 이러한 現象은 여러가지 活用形式에 가장 敏感하게 드러날 것으로 豫想되는 것이다.

가. 定動詞, 直說法

a. 說明形

語末語尾 {-다} :

說明形의 定動詞語尾는 {-다}가 그 基幹이 된다. 그러나 先行하는 語幹과 直接 結合하는 관계에서는 極히 制限된 形式을 가지고 있다.

(a-1) 네 콩 솜기를 아디 못하는 듯하다 <老諺上, 18>

네 콩 솜기 모릅는 듯하다 <蒙老, 一, 25>

이 사람이 콩 솜기 가장 아지 못하는 듯하다 <清老, 二, 2>

이와 같이 <ㄷ다(老諺上, 10), 꺾다(老諺上, 17), 덩다(老諺上, 56; 蒙老, 四, 9, 清老, 四, 15), 부르다(老諺上, 38; 蒙老, 三, 7), 골프다(老諺上, 35; 清老, 三, 5), 율타(老諺上, 10; 蒙老, 一, 15; 清老, 一, 15), 솜겁다(蒙老, 二, 4), 잇다⁽³¹⁾(老諺上, 20) 등 一般의 形容詞語幹과는 直接 結合하는 形式이 可能하지만, 動詞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바꾸어 말하자면 <動詞語幹+{-다}>의 形式은 抽象的으로는 可能할런지 모르나, 具體的으로 實現된 文例는 없는 듯하다.

本是 時相의 對立關係가 表示되지 않은 動作이란 抽象性을 免키 어려운 것이다. 形容詞의 경우, {-다}만으로서 機能할 수 있다는 것은, 이 形式이 過去形이나 未來形과 對立의 關係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動詞의 경우는 이들 對立에서 超然할 뿐만 아니라 다만 語彙項目의 基本形式을 構成하는데 必要한 要式的인 뜻 밖에는 없다. 이것만으로서도 上述한 特徵들이 가지는 妥當性은 理解될 것으로 믿는다.

(31) <잇다>의 品詞論의 性格에 대하여는 速斷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用法으로 미루어 볼 때는 形容詞의 範疇에 屬한다.

한편 {-도다}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이 엿보인다.

(a-2) 네 나히 하도다 슈레하라 <老諺上, 57>

네 나히 만하니 禮를 밋으라 <蒙老, 四, 11>

語尾 {-다}와 {-도다} 사이에 敍法上的 區分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다만 {-도-}의 資質은 先行된 狀況을 強調하여 다지는 感情的 價値를 가지는 形式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文例에서 이들이 서로 交替하더라도 文脈의 變化가 오지 않는 理由를 알게 된다.

(a-3) 그러면 마장 도토다 <老諺上, 7>

이러면 마장 토타 <蒙老, 一, 11>

그러하면 가장 조타 <淸老, 一, 10>

한편 {-도-}는 形態論의 制約된 {-로-}와 對應하는 關係로 實現되는데 여기에는 極히 制限된 條件이 支配하게 된다. 그 하나는 音韻論的인 것으로 /-i/를 先行시키는 連環일 때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이 경우도 無制限한 것은 아니다. 즉, 이것은 다음의 條件이 되는 形態論의 制約에 의하여 制限된다. 그 制約이란 敍述格接尾辭 {-이}를 先行시킬 때만은 例外가 없이 {-로}로 交替되지만 餘他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a-4) 이 張社長 집이 로다 <老諺上, 40>

이 張居士의 집이라 <蒙老, 三, 9>

또 하나의 것은 未來表示의 先語末接尾辭 {-리-}를 先行시키는 形式일 때다.

(a-5) 집을 收拾하노라 하면 마치 볼그리로다 <老諺上, 52>

집을 출히노라 하면 채 붉으리라 <蒙老, 四, 4>

집을 출를 즈음에 반드시 붉으리라 <淸老, 四, 10>

그렇기 때문에 語幹의 末音 /-i~/나 餘他의 接尾辭 {-이}를 前接한다 하더라도 {-로다}形은 原則의 容認되지 않는다.

위의 文例 (a-4, 5)에서도 보이듯이 (a-3)에서 指摘된 {-도다}와 {-다}의 交替와 같은 類型의 交替가 文獻間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눈을 끈다.⁽³²⁾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도/로-}의 形態論의 素性は 模糊한 一面을 안고 있다 하겠다.

說明形의 定動詞語尾 {-다}에 前接되는 接尾辭의 對立關係는 大部分 時相表示의 것으로 記述된다.

(32) 比率로 보아 <老諺>에서 {로다}로 表示된 形式이 <蒙老>나 <淸老>에서는 {-라}로 對應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떠한 規則처럼 嚴格했던 것은 아니며, 아마 文體上的 特徵으로 볼 만할 것 같다.

cf. 내 밋디 못 하여라 <老諺上, 45>

내 밋지 못 하노라 <蒙老, 三, 16>

내 밋지 못 하리로다 <淸老, 三, 21>

이미 例示했듯이(a-5) 未來形의 先語末接尾辭 {-리-}와의 關係에서는 {-리로다}가 容認될 뿐 {-리다}形 따위는 發見되지 않는다. 한편 이들 文獻에서는 未來의 先語末接尾辭 {-것-}의 用例는 어떠한 경우에도 찾을 수 없다.

다음 過去表示의 接尾辭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인다. 우선 先語末接尾辭 {-았/었-}과의 結合形이 보인다.

(a-6) 날이 낮 제었다 <蒙諺上, 59>

히 낮 제었다 <蒙老, 四, 14>

히 낮 제었다 <清老, 四, 21>

(a-7) 이 등잔불 오나다 <老諺上, 22>

燈臺 켜 가져 왔다 <蒙老, 二, 8>

燈臺 켜 가져 왔다 <清老, 二, 11>

(a-6, 7)에서 {-다}에 前接된 {-았/었-}이 分析될 疑心할 餘地가 없으나, (a-7)에서는 <오나다>와 <왔다>의 對應이 있어 {-나다}와 {-왔다}가 서로 交替可能한 形式으로 分析되어진다. 여기 先語末에 나타나는 {-나-}는 唯一한 語幹 {오-(來)}에 結合될 뿐이어서 마치 語彙構成의 複合形式 가운데 나타나는 唯一構成要素(unique Constituent)에 비길만 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理解해야 할지는 아직 速斷할 餘地가 못된다.

또 하나의 것으로는 {-아/어-다}의 形式이 보인다.

(a-8) 내 앓가 ㄹ 좀 치어나다 <老諺上, 52>

내 앓가 ㄹ 좀 치었다 <蒙老, 四, 3>

내 앓가 혼 좀 자고 썩여 보니 <清老, 四, 8>

여기서도 分明히 {-아다}와 {-었다}는 對應關係로 實現된다. 다음 例에서는 {-어다}가 찾아진다.

(a-9) 우리 밥도 먹어다 <老諺上, 55>

우리 飮食 먹어다 <蒙老, 四, 9>

우리 밥도 먹어서니 <清老, 四, 14>

이와 같은 先語末接尾辭 {-아/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早晚間 退化될 過程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極히 限定된 것으로 짐작되는 다음과 같은 用例가 있다.

(a-10) 小人들히 예와 슈페 하여이다 <蒙諺上, 39>

小人이 여귀 와서 受苦 하여다 <蒙老, 三, 7>

主人을 크게 슈고케 하여다 <清老, 三, 11>

여기 {-여이다}의 形式은 一見 生疎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蒙老>나 <清老>에서는 {-여

다}로 表示되었듯이 {-이-}는 {-이-}의 殘影으로 解釋하여질 때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

以上 {-다}를 基盤으로 하는 定動詞의 說明形의 여러 形式을 주어진 資料에서 찾아 보았다.
(a-1~10) 이들을 概略하여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前接語幹	格接尾辭	先語末接尾辭	語末語尾	備考
形容詞 用語		도/로 리 로 아/어 (여이) 나	다	(a-1) (a-2) (a-5) (a-6) (a-7) (a-7) (a-4)
體言	이		로	

語末語尾 {-라} :

說明形의 定動詞語尾에는 또 하나의 語尾 {-라}가 있다. 그러나 이 定動詞語尾는 또 하나의 文法的 意味를 가지고 命令法으로 機能한다. 그렇기 때문에 體言에 關係하는 叙述格接尾辭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前接語幹에 直接連結될 수가 없는 特徵이 前提된다. 本是 命令法이란 意味論的으로 極히 限定된 領域의 表現態度에 屬하는 것이어서 單純히 體言만으로 命令法이 될 수 없음은 論理上 當然한 일이다.

(a-11) 더 브라는 黑林이 곳 夏店이라 <老諺上, 54>

저리 비는 거문 습풀이 이 夏店이라 <蒙老, 四, 6>

저 눈 얹히 비는 거문 수풀이 곳 夏店이라 <清老, 四, 12>

前項의 (a-4)에서도 例示했지만 <體言+叙述格接尾辭[i]+{다}>의 形式이 있을 법하나 發見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는 大部分 定動詞語尾가 {-라}로 實現된다.

그런데 {-라}를 語末로 하는 活用形式은 {-다}에 比하여 대단히 多樣하게 펼쳐진다. 우선 {-니-}를 前接하는 {-니라}의 여러 경우를 例示하기로 한다. 勿論 이 {-니라}는 {-더라}나 {-리라} 따위와 辨別的인 對立의 단계에서 文法的素性이 주어짐은 分명한 일이다.

(a-12~i) 二十里 ㅅ하 人家 | 업스니라 <老諺上, 9>

二十里 ㅅ하 人家 | 업스니라 <蒙老, 一, 13>

二十里 ㅅ하에 人家 | 업스니라 <清老, 一, 13>

여기 分析되는 {-니라}는 時相으로 對立되는 形式인 것 같지는 않으며 客觀的인 規定性을 表示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이것에 前接되는 先語末接尾辭들의 對立形式에서 時相의 關係가 分析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다음 文例에서는 {-느-}가 分析된다.

(a-12~ii) 마장 줄겨 마르치느니라 <老諺上, 6>

우리 스승이 본디 즐겨 마르치 느니라 <蒙老, 一, 9>

우리 스승이 본디 용홈에 마장 힘써 마르치 느니라 <清老, 一, 8>

이 {-느니라}는 動詞와 一部 形容詞語幹에만 許容되는 形式이지만 分明히 現在形이었다. 그러나 이 時期에 걸친 {-느}는 漸次 그 固有한 時制上的 素性が 弱화되어 本然의 機能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記述된다.

(a-12~iii) 飢荒호 전츠로 아니완호 사롬이 낫느니라 <老諺上, 24>

가난호야 사오나온 사롬이 낫느니라 <蒙老, 二, 12>

年凶호기로 사오나온 사롬이 낫느니라 <清老, 二, 13>

그러한 理由없이 <낫느니라>의 {-느}가 理解될 수 없을 상싶다. 다시 말해서 {-느}는 過去時制의 先語末接尾辭 {-았/었-}이 範疇化되기 以前과 以後에 있어 큰 變化를 입지 않을 수 없는 壓力을 받았던 것 같다. {-느}가 現在時制를 固執하면서 過去·未來와 對立이 有效하는 限 {-았/었느-}(過去-現在)의 形式이 容認될 리 없다. 勿論 中世語의 {-앳/앳느-}에 있어서는 {-느}의 素性が 分明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앳/앳-}이 {-았/었-}으로 굳어져 過去의 時制形式으로 化石化된 結果 {-느}는 不得不 그 자리에서 밀려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次善의 것 즉 相(aspect)의 意味를 가지게 된다고 解釋하고 싶다. 이러한 趨勢는 過去表示의 {-더-}의 경우에도 드러남을 안다.

(a-12~iv) 우리 여귀 호 가지로 물깃논가 호더니라 <老諺上, 33>

우리 물깃기를 아지 못호⁽³³⁾앗드니라 <蒙老, 二, 24>

이 한 例文만으로서도 能히 앞에서 說明된 狀況이 理解될 상싶다. <老諺>의 形式을 일단은 擬古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蒙老>의 形式은 現實에 充實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지 文法史的인 考察을 하지 않는다⁽³⁴⁾ 하더라도 過去의 先語末接尾辭 {-더-}가 {-았/었-}에 의하여 밀리게 된 緣由을 알 것 같다.

(a-12~v) 쏘 다 차반 주어 먹이리라 <老諺上, 49>

쏘 다 쌀 주어 먹일러니라 <蒙老, 三, 21>

다 먹울 것 주어 먹일러니라 <清老, 四, 4>

이 文例에서는 <老諺>의 <먹이리라>와 <蒙老>의 <먹일러니라>가 對應하고 있는 關係가 드러나 보인다. 즉 이것은 語幹과 被動의 先語末接尾辭를 除外한 나머지 形式사이에 드러나는 關係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리라}와 {-러니라}의 對應關係다. 이것은 文脈的인 意味를

(33) 여기 {-드-}로 表記된 形式은 當時의 音韻論의 狀況 아래서 빚어진 副產物과 같은 {-더-}의 異形이다.

(34) 筆者는 紙面을 달리하여 時制表示를 비롯한 몇가지 先語末接尾辭들의 文法史的인 記述을 作業에 불 생각이다. 앞에 前提하기도 했거니와 本稿가 指向하는 바가 다만 制限된 資料 안에서 文法事實을 共時的으로 記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들의 具體的인 解明은 다음으로 미룬다.

보아서도 分明히 <老諺>의 그것이 表示한 未來形의 叙述일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러니라}의 形式中 {-러-}가 問題의 焦點이 될 것이며, {-르-}은 未來表示 그리고 {-러-}는 音韻論的으로 變異된 {-더-}로 보아서 벗어남이 없겠다. 이리하여 {-니라}에 前接되는 {-일러-}를 分析해 세울 수가 있게 된다.

다음은 體言의 叙述格形에도 이 {-니라}는 容認된다.

(a-12~vi) 잡황호전 곳 나노되 그라 <老諺上, 44>

物貨꼭는 푸지 그라 <蒙老, 三, 15>

貨物저게 나는 곳이 그니라 <淸老, 三, 18>

이로 미루어 볼 때 體言의 경우 {-니라}와 {-라}는 그리 큰 文法的 示差性으로 區別되었던 것이 아니었거나, 或은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니라}와 對立하는 形式 가운데 {-더라}가 있다.

(a-13~i) 내 드르니 앓피 길히 머호다 하더라 <老諺上, 24>

내 드르니 앓피 길히 사오납다 하드라 <蒙老, 二, 10>

내 드르니 앓길이 사오납다 하더라 <淸老, 二, 13>

先語末接尾辭 {-더-}에 대하여는 別途로 筆者의 意見을 뒀던 일이 있거니와⁽³⁵⁾ 本是 이 {-더-}는 時制表示의 對立體系 안에 들어 갔던 한 項으로서 過去를 機能하던 素性の 것이었음은 勿論 이거니와 한편으로는 或者가 直接으로 體驗한 過去의 어떤 狀況을 생생하게 表現하는 데도 效果的으로 쓰이던 要素이었다. 하물며 前者의 機能을 擔當하는 새로운 形式 {-앗/엇-}이 굳혀져 固有한 素性을 가지고 對立하는 關係를 構成함에 따라 自然히 {-더-}는 밀려오는 壓力에 의하여 그 本來의 자리에서 推移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더-}가 가졌던 對立의 實質은 退化되고 그 外延的인 意味 안에서 스스로이 位置를 굳힌다.

이러한 緣由로 위의 文例 (a-13)을 비롯하여 이 時期의 資料에 反射된 {-더-}에서는 後者の 意味가 支配的이며, 한편 他人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 {-더-}의 機能으로 말미암아 說明的이고 主觀化되어 마치 自己일처럼 親近한 느낌을 주는 效果를 갖는다. 이와 같은 推移는 (a-12~ii)에서 觀察했던 {-느-}의 경우와 系를 같이 하는 現象이다. 그렇기 때문에 過去形의 先語末接尾辭를 앞세운 {-앗/엇-더라}形이 容認될 수도 있게 된다.

(a-13~i) 일즙 性命은 상티 아니 하뒸더라 <老諺上, 27>

또호 목숨은 傷치 아니 하앗더라 <蒙老, 二, 15>

목숨은 오히려 傷치 아니 하엇더라 <淸老, 二, 19>

여기서는 또 하나의 先語末接尾辭 {-뒸-}이 찾아진다. 그러나 이것이 {-앗/엇-}과 交替可能

(35) 李承旭: 過去時制에 대하여—15世紀의 「-더-」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49, 50號, 1970

한 類型的 것이기는 하지만 結合條件은 唯一해서 {-더러} 以外の 例는 찾아지지 않는다.

以上 {-더러}形이 드러내는 形態論的 特徵으로 指摘되는 것은 前接의 時制形式을 가질 수 있으며 過去形式의 先語末接尾辭에 限한다는 條件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더러}의 文法的 素性을 檢出한다든가 通時的인 推移關係를 理解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注目을 끈다.

다음으로 이들과 排他的 關係에서 對立하는 形式으로 {-리라}가 있다.

(a-14~i) 우리 너일 五更頭에 일 가리라 <老諺上, 23>

우리 五更에 일 가리라 <蒙老, 二, 9>

우리 너일 五更時에 일 가리라 <淸老, 二, 12>

{-리라}가 前述한 {-니라}, {-더러}와 對立되는 資質로는 未來表示의 時制體系上的 特徵에 根據가 있다. 더구나 {-더러}의 경우와는 달리 이 時期의 言語事實에는 現代語에서 記述되는 未來形 {-겠-}같은 것이 發見되지 않아 時制表示의 先語末接尾辭로서 {-리-}는 有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前接하는 一切의 時制形式을 容認하지 않는다.

(a-14~ii) 내 너드려 저기 말 무로리라 <老諺上, 23>

내 네게 무를 말이 있다 <蒙老>

勿論 이 時期의 文法事實에 이른 바 意圖法의 先語末接尾辭 {-오/우-}가 有效한 것 같지는 않으나 때로 그 殘影들이 거의 形式化된 狀況으로 드러난다. 위의 文例에서도 <무로리라>와 <무로리라>間에 形態 乃至는 統辭上的 示差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한편 이들 {-니라}, {-더러}, {-리라}와는 文法的 次元을 달리하는 一連의 形式라)으로 {-지라), {-노라), {-로라}등이 나타난다.

우선 {-지라}를 보면,

(a-15~i) 達達사름으로서 도망하야 나온 이룻머라 <老諺上, 45>

되게서 逃亡하야 왔노지라 <蒙老, 三, 17>

逃亡호 淸人이었던 연고로 <淸老, 三, 21>

(a-15~ii) 진실로 울히 가난하여라 <老諺上, 49>

眞實로 울히 凶年이라 <蒙老, 三, 21>

울히 진실로 곡식이 貴호지라 <淸老, 四, 4>

(a-15~i)에서 前接된 形式 {-앗노-}에 대하여는 (a-12~iii)에서 詳考하였거니와 이 경우도 같은 論理로 {-지라}와 關係하는 것으로 理解하여 좋을 것 같다. (a-15~ii)에서도 그렇듯이 {-지라}는 原則적으로 現在形의 時制를 前接하고서야 運用되는 特徵의 것이었던 상싶다. 이와 같은 類型的 것으로 다음에 例示하는 {-노라}形의 特徵이 있다. (36)

(36) 이 {-지라}의 形式은 <曆幹+{-아/어-지라}>의 形式도 可能하지만 이 경우와는 그 叙法上的 性格이 다르다. 내 손조 셋겨면어지라 <老諺上, 55>

(a-16~i) 내 이 여러 물 가져 폴라 가노라 <老諺上, 7>

내 이 여러 물 가지고 폴라 가노라 <蒙老, 一, 11>

이 물 가져가 폴라 가노라 <清老, 一, 10>

(a-16~ii) 내 쏘 혼 일을 니저세라 <老諺上, 28>

내 쏘 혼 일을 니졌노라 <蒙老, 二, 16>

내 쏘 혼 일을 니졌노라 <清老, 二, 20>

(a-16~i)의 {-노라}가 現在形임은 本是 {-노}가 {-느-오-}로 分析可能한 데서 그 理由를 찾을 수 있으려니와 (a-16~ii)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亦是 이 경우도 (a-12~iii)의 경우와 같은 原理에서 {-노}가 過去形의 先語末接尾辭 {-앗/엇-}의 固定으로 말미암아 本然의 제 구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過去時制와 더불어 主觀的인 相(aspect)을 表現하는 形式이 되어 갔다.

이렇게 해서 {-노라}는 <語幹+{-노라-}>形과 <-앗/엇+{-노라}>形 밖에 찾아지지 않는다. 한편 體言의 叙述格形의 定動詞語尾 {-로라}가 보인다.

(a-17) 네 비록 遼東사름이 로라 하나 <老諺上, 45>

네 비록 遼東사름이라 하나 <蒙老, 三, 16>

네 비록 遼東사름이라 하나 <清老, 三, 30>

이렇게 하여,

體言+叙述格接尾辭{-i} + { $\begin{cases} \text{라} & (a-11) \\ \text{니라} & (a-12\sim vi) \\ \text{로라} & (a-17) \end{cases}$ }

와 같은 類型을 살피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위 文例로 미루어 {-로라}와 {-라}는 交替可能한 形式으로 나타난다. 전혀 同一한 意味로 對應할 것인가는 且置하고, 文法的인 類型이 같은 것은 分明한 것 같다.

이 {-로라}와 關聯되는 일로, 用言이 {-로라}를 定動詞語尾로 하는 形式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적어도 {-로-}를 가진 形式을 가질 경우는 未來時制 {-리-}를 前接할 경우로서 {-리로다} (37)로 實現되었던 것이다.

또한 特異한 形式 가운데 하나로 {-패라}가 있다.

(a-18) 여기 넌이패라 <老諺上, 53>

너희를 受若케 하여다 <蒙老, 四, 5>

너희를 크게 슈고케 하여다 <清老, 四, 11>

(37) 그 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며도 밥 먹기 못후리로다 <老諺上, 41>

저도 밥 먹기 못후리라 <蒙老, 三, 11>

저도 밥 먹기 못후리라 <清老, 三, 14>

오늘부터 알패라 <老諺上, 32>

오늘부터 코비호와 <蒙老, 二, 23>

오늘 친히 시험하니야 시러곰 씨첫노라 <清老, 二, 26>

이러한 文例로 보아 {-패라}는 成立되며, 過去時制와 對應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른 것으로 다음에서는 {-애라}가 分析되어 진다.

(a-19) 밥을 먹디 못하여시니 ㅁ장 빅 골패라 <老諺上, 48>

밥 먹지 못하야시대 빅 ㅁ장 골푸니 <蒙老, 三, 20>

또 達達도 아니니 모로리로다. 엇던 사름고 <老諺上, 45>

淸人도 아니니 엇던 사름인 줄을 몰래라 <淸老, 三, 21>

이것만 가지고 {-애라}의 文法的 素性を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나, <골패라>에서는 現在의 狀態를 드러내는 한편, <몰래라>는 推測 或은 疑問의 意味를 潛在시키고 있다.

앞의 {-패라}(a-18)와 여기 {-애라}는 一見 形態論의인 自由變異(free variation)와도 같은 印象을 주지만 以上에서 分析했듯이 示差의인 機能을 가진 別項의 것으로 보는 편이 妥當하다.

한편 드물게 쓰이는 形式이기는 하나 {-여라/-에(으, 에)라/어세라} 따위가 찾아진다.

(a-19~i) 진실로 울히 가난하여라 <老諺上, 49>

(a-19~ii) 또 아므란 도훈 차반도 업신라 <老諺上, 39>

또 아므란 도훈 차반이 업세라 <蒙老, 三, 8>

또 훈 말이 이세라 <老諺上, 50>

내 또 훈 일을 니저세라 <老諺上, 28>

끝으로 {-올러라}의 形式이 보인다.

(a-20) 또 허릭은 니천을 어들러라 <老諺上, 13>

대되 헤면 저기 利 잇드라 <蒙老, 一, 20>

다시 헤니 利患을 크게 어들러라 <淸老, 一, 220>

이것은 過去에 있었던 經驗으로 미루어 본 推測이나, 豫想을 主觀的으로 내리는 意味의 것으로 把握되는 形式이다.

以上 {-라}로 終結하는 定動詞의 說明形을 網羅해 그 概略을 더듬어 왔다. 이를 綜合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b. 疑 問 形

定動詞의 疑問形에 있어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形態論的으로 安定된 狀態에 앞서 相當한 期間에 걸쳐 이를 實驗하고 準備하는 現象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能히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特定한 時期가 果然 그러한 期間에 屬하느냐 하는 問題는 그리 簡單하게 處理될 것만은

前接語幹	格接尾辭	先語末接尾辭	語末語尾
體言	이		(a-11)
	이	로	(a-17)
	이	니	(a-12~vi)
用言		니	(a-12~i)
		느니	(a-12~ii)
		앗/엇느니	(a-12~iii)
		더니	(a-12~iv)
		일러니	(a-12~v)
		더	(a-13~i)
		앗/엇(듯)더	(a-13~ii)
		리	(a-14~i)
		오리	(a-14~ii)
		앗/엇느지	(a-15~i)
		느지	(a-15~ii)
		노	(a-16~i)
		앗/엇노	(a-16~ii)
		꽤	(a-18)
		애	(a-19)
		크러	(a-20)

아니다. 이른바 混亂의 亂脈狀이 露出되는 底邊에는 既存의 秩序와 體系가 崩壞하는 過程의 것과 發展의인 改造를 위해 苦悶하고 試驗하는 段階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現象은 한 特定의 形態素에 있어서나, 或은 그 形態素들이 모이어 構成된 文法體系에 있어서나 같은 原理 밑에서 進行된다. 그러나 그 進行은 皮相的으로 露出되는 結果보다도 대단히 陰性的이며 不透明한 現象으로 徐徐히 여과되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構成하게 된 體系의 理解는 그 自體의 問題와 더불어 그것을 가져오게끔 했던 試驗의 混亂期에 대한 여러 問題를 밝히는 무거운 比重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은 前項의 여러 곳에서 이미 指摘되어 온 터이지만, 特히 疑問形의 경우 이들의 側面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하여 注目을 끄는 것이다.

우선 疑問形으로 統辭하는 文은 特徵의이어서 體言文의 形式을 갖는다 함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 時期의 言語資料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傾向으로 疑問의 添辭만으로 構成된 體言文과, 活用形式을 가지고 疑問을 表示하는 體言文이 뒤섞이어 어지럽게 벌어진 現象이 찾아진다.

(b-1) 딛폰 언머의 혼 뭇고 <老諺上, 16>

조스집혼 언말돈에 혼 뭇고 <蒙老, 一, 22>

집혼 언머에 혼 뭇시노 <淸老, 一, 25>

여기서 說明疑問의 素性을 가지고 體言語幹과 直接關係하는 添辭 {-고}가 찾아진다. 添辭 {-고}를 가진 疑問의 統辭上 特徵은 疑問辭와의 呼應關係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形式의 疑問은 어떠한 說明을 義務的으로 要求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위 文例에서도 <언머/언말>에 대한 內譯을 證明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疑問이 된다.

(b-1~i) 너희 高麗人싸헤 우물이 업스나 엇디오 <老諺上, 32>

너희 朝鮮人싸헤 우물이 업스나 엇지 물깃기 아지 뭇하노노 <蒙老, 二, 23>

<엇디>에 대한 語彙範疇을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若干의 問題가 없는 바 아니지만 이에 連結된 {-오}는 {-고}의 異形임이 分明하다. 이러한 構成形式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며, 그러기에 더욱 關心을 끌게 하는 例가 된다.

(b-1~ii) 엇디 홀손 免帖인고 <老諺上, 3>

엇지 혼 免帖이노 <蒙老, 一, 4>

免帖주는 거시 엇지오 <淸老, 一, 4>

이것은 {-인고}로 實現된 {-고}의 경우다. (b-1)에서 分析된 {-고}와 그 素性이 전혀 同一하면서도 이러한 形式으로 쓰임은 興味있는 일이다. 勿論, 이 {-인고}는 {-이-고}로 分析 可能하며, <一叙述格接尾辭—時制表示—疑問表示>의 結合形式인 것으로 대단히 論理的이다. 要는 이것이 活用形式에 의한 構成이라는데 特徵이 있다.

이와 같은 變形은 形態史的인 意味를 지닌 重大한 問題를 던져주는 것이다. 特定한 意味로 作用하던 添辭(particle)의 性格이 없어져 語尾化되어 가고 있는 狀況이 엿보인다. 따라서 {-인고}, {-이노}는 非示差的으로 交替가 容認되는 것이다. 本是 {-고}와 對立關係에 있던 添辭에 {-가}가 있었다.⁽³⁸⁾

(b-2) 그 잡황호전이 네하가 <老諺上, 44>

그 物貨푸지 네것가 <蒙老, 三, 15>

그 貨物저제 네 거시나 <淸老, 三, 18>

{-고}와 {-가}의 對立關係는 外的인 統辭關係에 있다. 卽 {-고}의 경우, 반드시 疑問辭와의 呼應을 이루어 그에 대한 說明을 要求하는 疑問이었음에 反하여, {-가}는 疑問辭를 必須로 하는 짜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判定만을 要求하는 疑問이다.

그러므로 위 文例의 물음에서도 原則적으로 <그렇다/아니다>만을 要求할 뿐, 어떠한 理由나

(38) 安秉禧: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建大), 1965, pp. 59-82

李承旭: 疑問添辭攷—특히 그 對立意識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제26호, 1963, pp. 186-200.

方法, 對象따위의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한편 이 경우도 <淸老>의 {-이냐}와 <老諺>의 {-가}는 對應하여 變形이 可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냐}의 素性을 밝히는데 重要한 구실을 하는 資料가 되리라 믿는다. 이와 같이 {-이냐}는 {-가}와 더불어 非示差的인 同一項을 이루는데 對立하여 {-고}와 더불어 同一項을 構成하는 {-노, -이노}가 있음은 아주 組織的이라 할 수 있다.

(b-3) 언머는 高麗人사롬고 <老諺上, 6>

朝鮮사롬은 언머노 <蒙老, 一, 9>

朝鮮사롬은 언머노 <淸老, 一, 9>

이의 對應關係는 文例 (b-1~ii)에도 드러났으며, 結局 {-가/-냐} : {-고/-노}를 엮을 수 있을 듯하다. 다시 이것을 展開하면, {-가} : {-고} / {-냐} : {-노}로도 可能하며, {A} / {B}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資料로 미루어 본 이 時期의 傾向으로는 {A}가 衰退一路를 걸고 있는 狀況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選擇한 資料가 口語的인 對話體를 主軸으로 한 文型들이기 때문에 疑問形의 形式이 대단히 多樣한 것으로 나타난다. {-니}라든가 {-이여} 따위의 異例的인 形式도 그러한 類型의 하나일 것이다.

(b-4~i) 너희 대되 몇사롬에 몇덜고 <老諺上, 60>

너희 대되 몇人馬니 <蒙老, 四, 16>

너희 대되 몇사롬이며 몇덜이노 <淸老, 四, 23>

(b-4~ii) 형아 네 성이여 <老諺上, 7>

몬아 네 姓이 무엇고 <蒙老, 一, 10>

형아 네 姓이 무엇고 <淸老, 一, 10>

다음은 用言을 疑問의 敍述로 할 때의 定動詞語尾에 대한 大綱을 보기로 한다. 우선 疑問形의 個性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는 時制表示의 前接形態를 가지고 實現되는 {-다}形이 指摘된다.

(b-5~i) 네 서울 뜨슴 일 이서 가^느다 <老諺上, 7>

네 서울 뜨슴 일로 가^느다 <蒙老, 一, 10>

네 皇城에 뜨슴 일 이서 가^느다 <淸老, 一, 10>

이 {-느다}는 現在進行의 時相을 가진 疑問形이다. 이 때 說明形과 疑問形을 辨別하는 對立은 {-느다} : {-느다}이지만, 分析的으로 볼 때는 {-다} : {-느다}로도 形式化할 수 있겠다. 勿論 敍述形式의 對立 以外에도 統辭的인 特徵(가령 疑問辭를 가진 構成이라든가)으로 對立形을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現在進行의 時相을 드러낸다고 했지만, 說明形에서도 指摘했듯이 過去時制를 前接하고 쓰이는 變形이 이 경우도 나타난다.⁽³⁹⁾

(39) 이 構成形式은 이 時期의 特徵的인 것으로 時制形式의 轉移過程을 알리는 興味로운 것이다.

cf. 네 以前의 北京 토니기 너은 사롬이어놀 이제 엇지^느여 너^느다. <淸老, 四, 12>

(b-5~ii) 나그네네 더오니 먹을다 <老諺上, 57>

나그네들 더운 거슬 먹으려 하는다 <蒙老, 四, 11>

나그네네 더운 거슬 먹을다 <清老, 四, 16>

疑問의 定動詞語尾 {-다}가 分析된다. 이것은 未來時制의 테두리에서 어떠한 動作의 可能性이나 意思를 묻는 意味로 記述된다. <蒙老>의 例에서는 前項 (a-5-i)의 形式을 取했지만, 副動詞形式(먹으려)과의 聯合에서 같은 類型의 意味를 結果한다.

(b-5~iii) 네 언제 王京의서 떠나다 <老諺上, 1>

네 언제 王京서 떠나는다 <清老, 一, 1>

여기 {-다}가 過去形입은 分明하다. 그렇기 때문에 <清老>에서는 {-는다}와 같은 過去形式으로 交替되어 있다.

以上 疑問形의 定動詞語尾 {-다}에 前接된 接尾辭 {-는-/-르-/-ㄴ-}은 用言의 語幹과 關係하여 그 機能을 冠形詞形으로 轉成시키는 同時에 時制上的 對立關係를 素性으로 하는 形態素다, 이와 같은 素性의 形式이 어디에 {-다}와의 結合이 可能한 論理가 있으며, 또한 疑問의 文型을 特徵적으로 나타내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詳考할 餘裕가 없어 다음 機會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로서 終結되는 疑問形은 前接形態素에 의하여 세가지 對立項을 가지게 되는 結果를 얻는다.

다음은 이와 系를 달리하는 {-냐}로서,

終結되는 形式이 있다. 여기에는 說明形의 定動詞語尾에 前接되었던 것과 거의 一致하는 時制表示의 先語末接尾辭들이 結合하여 여러 갈래로 나타난다.

(b-6) 머금이 부르냐 아니 부르냐 <老諺上, 38>

먹어 부르냐 아니냐 <蒙老, 三, 7>

부르냐 못하냐 <清老, 三, 10>

이 {-냐} 形式은 形容詞의 語幹과 關係하며, 現在表示를 한다. 特히 이 形式이 드러내는 特徵적인 素性は 體言語幹에 連結되어 判定疑問을 구실했던 添辭 {-가}와 同類의 것으로 記述될 上이다. 위 文例를 비롯하여 다음의 여러 경우를 注目함으로써 確認될 것으로 믿는다.

(b-6~i) 즐겨 마르치냐 <老諺上, 6>

즐거 마르치냐 <蒙老, 一, 9>

힘써 마르치냐 <清老, 一, 8>

勿論, 이것은 現在表示의 疑問形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疑問辭 같은 것을 義務적으로 要求하는 일이 없는 判定의 疑問이다. 그런데, 다음의 文例로 미루어 亦是 疑問의 體言文에서 {-가}, {-고}가 對立했듯이 用言의 경우 {-냐}와 {-뇨}의 對立關係가 찾아질 것 같다.

(가) 너희 朝鮮짜희 우물이 업느냐 엇지 물것기 아지 못하노 <蒙老, 二, 23>

{-느냐} : {-노}의 對立의 徵表는 {-냐} : {-노}의 素性이며, {-냐}는 判定이고, {-노}는 <엇지>를 밝히려 할 要求가 있다.

(나) 이 서툰 못 드라 오니간 <老諺上, 14>

혹 서로 만나 온 이냐 <清老, 一, 22>

이로 미루어 보아도 {-가}와 {-냐}의 對應은 成立된다. 이와 더불어

(다) 서울 물 잡시 엇더 호고 <老諺上, 8>

皇城 물 잡시 엇더 하노 <清老 一, 11>

에서는 {-호고}와 {-노}의 對應關係를 찾을 수 있게 된다. 結局은 {-가 : 호/-냐 : 노}에서 {-가/-냐} : {-호/-노}의 關係가 理解된다.

(b-6~ii) 이제 고렷느냐 못하엇느냐 <老諺上, 23>

이지 고쳐느냐 고치지 못하얏느냐 <蒙老, 二, 9>

이제 고쳐느냐 못하엇느냐 <清老, 二, 12>

또 하나의 새로운 形式 <用言語幹+{-엇느냐}>가 導出된다. 이것의 細部에 미치는 分析은 다음 項으로 미루려니와 다시 {-느냐}와 {-느냐}의 對應이 容認됨을 確認할 수 있다. 한편 過去形 先語末接尾辭 {-얏/엇-}과 더불어 聯合形式을 이루며 過去形이 됨은 앞에서 說明된 바와 같다.

(b-6~iii) 빛 잡시 썻던가 더던가 <老諺上, 8>

빛 잡시 엇더 하드노 <蒙老, 一, 2>

빛 잡시 바던냐 바지 못하던냐 <清老, 一, 11>

우선 {-던냐}가 새롭게 찾아진다. 過去에 있었던 經驗을 回想시켜 묻고 있는 意味다. 한편 위 文例는 이제까지 普及해 온 여러가지의 關係를 含蓄시키고 있다. <엇더>로 말미암은 {-드(더)노}라든가, {-던가}와 {-던냐}의 對應같은 것이 그것이다.●

끝으로 {-냐}의 여러 形式 가운데서 未來表示의 前接形態를 가진 文例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 點을 指摘해 둔다. 아마 이것은 {-냐}의 素性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음으로 해서 制約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未來形에는 特異한 形式 {-료/-리오/-리} 따위를 가진다.

(b-7~i) 엇지 성십이나 허물 하로 <老諺上, 37>

엇지 敢히 허물 하린 <蒙老, 三, 5>

엇지 감히 도로혀 허물 하리오 <清老, 三, 8>

이와 같은 {-리오}系의 疑問形은 {-리고}系와 對應關係에 있는 說明疑問을 이룬다. 따라서 大概의 경우, 疑問辭를 義務化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b-7~ii) 우리 모습 음식을 먹어야 도호고 <老諺上, 54>

우리 무어슬 먹어야 도하리 <蒙老, 四, 7>

우리 무어슬 먹으면 조호로 <清老, 四, 12>

이렇게 볼 때 {-리오}의 {-오}는 {-고}의 <ㄱ> 脫落形임이 分明할 듯하다. 本來 이 {-고}는 위에서도 살폈듯이(b-1) 疑問의 體言文을 構成시키는 特殊한 添辭이다. 그러나 이 段階에 이르러는 活用語尾化된 느낌이 짙다. 더구나 變異된 {-리오, -로, -리} 따위의 形式이 되고 보면 오히려 語源의인 分析이 自然스럽지 못한 느낌마저 있다. 이와 같이 活用語尾와 다를 바 없는 <老諺>의 {-르고}系는 (b-1~ii)에 보인 {-르고}, 그리고 다음의 {-느고} 따위를 한 묶음으로 하여 나타낸다.

(b-8) 엇지하야 이런 사오나온 사롬이 잇느고 <老諺上, 24>

엇지하야 사오나온 사롬이 잇느노 <蒙老, 二, 10>

엇지하야 이런 사오나온 사롬이 잇느고 <清老, 二, 13>

여기서 {-느고}가 뚜렷해짐은 勿論이거니와 {-노}系와의 對應에 대해서도 一考를 要하게 되는 契機가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例文은 이미 (b-3)에서 提示하고 거기서 이들의 對應과 對立의 關係에 대하여 言及한 바가 있다. (b-3)의 文例를 再吟味하기 위하여, <언머>를 A, <高麗人사롬>을 B라고 할 때 <老諺>의 形式은 <A는 B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蒙老>나 <清老>의 경우는 A와 B와의 關係를 置換시킨 變形으로 나타낸다. 이럴 때 深層의 意味構成에는 何等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理解되며, 다만 定動詞의 形式만이 다르게 實現되고 있다. 即 <B는 A노>가 되어 {-고}와 {-노}의 對應關係가 成立하는 結果다. 한편 이 {-노}에 아무런 前接形式을 가지지 않은 狀態로는 語幹形式이 體言과 形容詞만으로 制限되는 것이 原則인상 싶다.⁽⁴⁰⁾ 이러한 傾向은 앞의 여러 文例에서도 確認되는 일이다. 이러한 制限은 여러 가지 時相表示의 前接形式을 가지므로써 解消된다.

(b-a~i) 예서 서울 가기 몇즘게 길히 잇느노 <老諺上, 9>

예서 서울 가기 몇리 잇느노 <蒙老, 一, 14>

여기서 皇城에 나르기 몇리 잇느노 <清老, 一, 14>

이 {-느노}는 現在形의 疑問이다. (b-8)의 例에 미루어 {-느고}와 對應함을 알 수 있다.⁽⁴¹⁾

(40) 이에 대하여는 앞의 (b-1)과 (b-1~ii)에서 例示하여 說明된 바 있다. 이들을 補充하는 뜻으로 다음 例를 添加해 둔다. 閣에서 뜬이 언매나 먹노 <老諺上, 43>

樓閣에서 언매나 먹노 <蒙老, 三, 14>

(41) 때로는 {-느노}와 {-느나}의 混用같은 것이 없는 바 아니나, 이것은 {-노}와 {-나}의 素性이 中和되어 가는 過程의 現象일 것으로 믿는다.

cf. 어되 우물 잇느노 <老諺上, 28>

우물이 어되 잇느니 <蒙老, 二, 16>

어되 우물 잇느나 <清老, 二, 20>

(b-9~ii) 樓閣에서 언머 멀리 즈음 호엿노노 <清老, 三, 18>

호 나그네 두 주인을 적시디 못 홀 써시니 엇디 호려노 <老諺上, 47>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물러노 <老諺上, 13>

서울 물 감시 엇디 호드노 <蒙老, 一, 18>

이와 같이 {-노}에 前接되는 {-엿노-}, {-려-}, {-려-}, {-드(더)-} 등 여러 形式을 얻게 된다. 이들은 모두가 上述한 바도 있듯이 時相의 素性을 가지고 用言語幹에 關係하는 것이다.

結局 定動詞語尾 {-노}는 {-냐}와 對立의 雙을 이루면서 {-고}와 {-가}의 對立雙에 對應關係를 이룬다.

疑問形의 對立形式 가운데 또 하나의 雙이 發見된다. 그것은 語源의인 分析으로 볼 때 大段히 異例의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用言을 前接語幹으로 取하는 {-가}와 {-고}의 對立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가}의 경우부터 보면,

(b-10~i) 네 이 店에 담과 콩이 다 잇노가 업슨가 <老諺上, 16>

네 이 店에 집과 콩이 다 잇노냐 업노냐 <老諺, 一, 24>

亦是 여기서도 {-가}와 {-냐}의 對應이 確認될 것으로 믿으며, 素性에 있어서도 體言文의 添辭 {-가}의 경우와 別로 떨어진 상설지 않다. 用言의 語幹과 直接으로 連結될 수 없는 制約은 이 形態素의 語源의인 素性때문에 주어지는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形의 {-노가}는 이 와 並行하여 過去, 未來의 形式으로 展開되어 있다.

(b-10~ii) 호 곳 드리 물허더 잇더니 이제 고엿노가 못호엿노가 <老諺上, 23>

빛 감시 썸던가 디던가 <老諺上, 8>

小人이 소호 말이 이시니 닐 엄죽 홀가 <老諺上, 47>

즉, {-엿노가, -던가, -르가} 따위가 바로 이것을 說明해 주는 것이다.

다음 {-고}의 경우도 이와 같은 類型의 形式으로 展開되는 狀況이다.

(b-11) 엇디하야 이런 사오나온 사롬이 잇노고 <老諺上, 24>

서울 물 감시 엇디 홀고 <老諺上, 8>

나그네들 드슴 차반 먹을고 <老諺上, 55>

以上 定動詞의 直說法에 屬하는 疑問形을 構成하는 여러 形式들을 分析 記述하였다고 본다. 이들을 綜合分類하여 圖示하면 [別表 1]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一覽된 各項의 文法的素性을 다시 整理하여 그 對應과 對立의 關係를 系列로 나누어 보면 [別表 2]를 얻는다.

[別表 1]

先行語幹	添辭	格接尾辭	前接接尾辭	語末語尾	備考
體言	고/오 가	이 이 이 이	ㄴ	노 노 고 냐 여 니	(b-1~i, ii) (b-2) (b-3) (b-1~ii) (b-1~ii) (b-2) (b-4~i) (b-4~ii)
用言			는 았/었는 ㄴ ㄴ 았/었는 더 는 았/었는 려 려 더 리 는 았/었는 던 ㄴ 을 ㄴ	다 다 다 다 냐 냐 냐 냐 노 노 노 노 노 노 로 오 리 가 가 가 가 고 고 고	(b-5~i) (b-5~iii) (b-5~ii) (b-5~iii) (b-6) (b-6~i) (b-6~ii) (b-6~iii) (b-1~ii) (b-9~i) (b-9~ii) (b-9~ii) (b-9~ii) (b-9~ii) (b-7~i) (b-7~i, ii) (b-7~i) (b-10~i) (b-10~ii) (b-10~ii) (b-10~ii) (b-8, 11) (b-7~ii, 11) (b-1~ii, 11)

[別表 2]

先行語幹 形式系列	體言	用言
{-고/오}系	—고/—오	—노 —고
{-가}系	—가	—냐 —가
{-다}系		—다

나. 定動詞 : 命令法

c. 嚴命形

命令法の 嚴命形에 役割하는 定動詞語尾는 {-라}다. 命令法에 구실하는 統辭關係의 構成形式은 直說法の 경우와는 特徵的인 것으로 記述된다. 그 가운데서도 嚴命形은 가장 顯著하게 다른 徵式으로 實現되는 關係에 있다. 비단 定動詞語尾 {-라}의 素性에 의하여 辨別되는 叙法上 特徵 뿐만이 아니라, 文構成의 形式에도 固有한 類型으로 나타난다. 一般的인 原則이 되겠지만, 첫째로, 命令文은 動詞文이어야 하며,

두째로는, 命令體와 被命令體의 論理的인 構成이 分明하여 主語 없는 文型을 이룬다. 오히려 이러한 文일수록 自然스럽다.

세째로, 主語가 提示될 경우라 하더라도 原則적으로 第2人稱으로 支配되며, 第1人稱文은 成立할 수가 없다.

네째는, 定動詞의 時相이 單一하다. 즉 過去나 未來에 대한 命令은 不可能하며, 時制上으로는 언제나 現在의 것이라야만 한다.

이와 같은 몇가지의 特徵들은 勿論 <命令>이라는 意味上的 論理性에 말미암은 制約일 것이지만, 또 하나의 다른 角度에서 볼 때는 語尾 {-라}의 素性이 이러한 結果를 要求한다고 說明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說明形の 定動詞語尾로 實現되었던 {-라}와는 뚜렷한 示差性을 가진 素性의 것으로 記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形態素에게 주어진 辨別的인 素性이 다만 形態上的 形式에 드러나는 差異만에 依存되는 것이 아니라, 그 形態素가 支配하는 文型 가운데의 여러 形式과의 關係에서 具體化된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우선 嚴命形の 文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c-1) 네 쏘 날 소기디 말라 <老諺上, 16>

네 날을 소기지 말라 <蒙老, 一, 23>

네 쏘 나를 소기지 말라 <淸老, 一, 25>

이러한 類型的인 것은 禁止를 嚴命으로 表示하는 例다. 아마 가장 傳統的인 것으로 여겨진다.

(c-2) 다른 됴에 시험하야 商量하라 가라 <老諺上, 17>

다른 店에 施驗하야 보라 가라 <蒙老, 一, 23>

이것은 <動詞語幹+{-라}>의 것으로 基本的인 것이다. 이 基本的인 것에 時相表示의 先語末語尾를 除外한 餘他의 先語末語尾를 前接形式으로 하여 實現된다.

(c-3) 호 번 버므린 딥 머거든 기득려 물 머기라 <老諺上, 22>

우리로 하야 하룻밤만 재라 <老諺上, 44>

우리물 흐룻밤만 재오라 〈清老, 三, 19〉

여기서 <-이-[-라]>와 <-이-오-[-라]>가 分析된다. 先語末語尾 {-이-}가 使動態의 것임은 再言을 要치 않으나, 〈清老〉의 {-이오-}의 경우는 異例의이다. (42)

(c-4) 네 쪼 더러로 오나라 〈老諺上, 52〉

네 뒤히 오라 〈清老, 四, 9〉

前接語尾 {-나-}가 찾아지지만, 이것이 文法的인 素性을 두렷이 하는 形式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清老〉의 {-라}와 交替가 容認되는 상싶다. 앞에서 提示했던 〈오나라〉의 경우도 {-나-}가 分析되었으며, 아마 이것은 〈오다〉의 語彙項目과 관계하는 것으로 處理됨이 順理일 것이다.

(c-5) 벗들아 닐거라 〈老諺上, 34〉

벌들아 닐라 〈蒙老, 三, 1〉

벗들아 닐렬으나 〈清老, 三, 3〉

亦是 前接語尾 {-거-}가 分析되어지나, 〈蒙老〉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서도, 이에 文法的 素性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c-6) 음식 쪼는 닛 사름아 상스서라 〈老諺上, 55〉

이것과 (c-5)의 {-거라}는 語源的으로 같은 것이며, {-가/거-}와 {-아/어-}는 音韻論的으로 條件되는 것일 상싶다. 구태여 {-거/어-라}와 {-라}를 對立意識으로 볼진댄 感情價値에 關係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즉 {-거/어-라}는 被命令者의 裁量이 희미하나마 주어지는 한편, 命令者의 勸誘가 깃들여지는 느낌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c-5)의 〈清老〉에서 對應關係를 보여 주는 {-렬으나}의 容認性이 풀릴 것 같다. 그렇게 하여 嚴命形과는 다른 命令으로 請誘라든가 勸誘의 形式이 있게 된다.

다음 {-라}와 對應하는 또 하나의 것에 {-쇼셔}가 보인다.

(c-7) 민 밥을 잔대로 먹으라 〈老諺上, 36〉

비록민 밥이나 브르도록 먹으쇼셔 〈清老, 三, 7〉

{-쇼셔}가 敬語形式인 관계로 嚴命의 意味가 作用될 수 없다는 一般的 論理가 通用되는 것이지만, 그 밑바닥의 意味는 亦是 命令에서 出發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命令者와 被命令者의 階層關係로 달라지는 形式일 것이다.

(42) {-이-}나 {-오-}가 共に 使動態의 先語末語尾로 分析되어 重複된 形式이다. 그러나 이것은 前接의 {-이-}는 形態인 것이 아니라 音韻上의 形式으로 理解함이 옳겠다. 즉, 語幹 {자-}는 使動의 語尾 {-이-} 或은 {-오-}를 가질 수 있어, {-오-}를 取할 경우의 音韻上 要求로 {-이-}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cf. 프리 能히 먹우디 물ᄃ야 〈月釋十八, 56〉

처름와 쪼 웃넝고 〈朴通事上, 53〉

d. 請誘形

命令이 一方的인 힘으로 制壓될 때 嚴命이 된다면, 請誘나 勸誘는 命令者와 被命令者間의 對立意識이 생기고 一方的 強制에서 벗어난 命令이라 할 수 있다.

(d-1) 큰 형아 도흔 은을 주고려 <老諺上, 58>

큰 형아 도흔 은을 주려무나 <蒙老, 四, 13>

큰 형아 조흔 은을 주렷으나 <清老, 四, 19>

前項 (c-5)에서 {-렷으나}가 分析되고, 이것이 비록 {-라}와 對立形式으로 例示가 되기는 하였지만, 請誘의 뜻으로 弱화되었음을 指摘했다. 여기서는 이것과 對應關係를 이루어 交替되는 形式 {-고려}가 確認된다. 注目을 끄는 것은 {-렷으나}는 <清老>에서 즐겨 쓰고, <蒙老>에서는 間或 쓰여지고 있는 傾向임에 비추어, <老諺>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反面에, {-고려}는 <老諺>에서 즐겨 쓰고 있는 傾向이다. 이러한 性格으로 미루어 볼 때는 文法的 素性보다도 文體上의 傾向일 듯하다. 다시 다음의 文例에서 {-고}가 分析된다.

(d-2) 여섯 닛돈을 거스려 날 주고려 <老諺上, 58>

여섯 닛돈을 도로 내게 다고 <蒙老, 四, 13>

네 六厘銀을 도로 날 다고 <清老, 四, 19>

그런데 이 {-고}를 가지는 形式은 唯一해서 <다고>의 構成 以外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語彙項目의 形態 {다-} 自體가 不具의 活用形式을 가지고 있는 特殊한 것이라는 點에서 이러한 唯一形式의 理由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해서 請誘形의 特徵인 形式으로는 {-렷으나/-고려/-고} 등이 찾아진다.

e. 願望形

願望形이 命令法에 歸屬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批判을 거쳐야 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우선 包括시켜 다루린다. 우선 嚴命形이나 請誘形과는 文構成이 다르다. 즉 願望形은 原則적으로 1人稱 文이라야 하는 論理的 特徵을 가지고 있음이 크게 다른 것이다.

(e-1) 내 손조 셋거 먹어지라 <老諺上, 55>

내 손조 타 먹자 <蒙老, 四, 8>

우리 친히 타서 먹자 <清老, 四, 14>

여기 定動詞語尾 {-아지라}, {-자}는 願望形의 素性으로 分析되는 形式이다. {-아/어지라}는 이를 構成하고 있는 {-아/어-}, {-지-}, {-라}가 각각 個性的인 素性으로 分離可能한 것이 못 되는 固定形式의 것이다. 한편, 이 形式은 <老諺>에 자주 實現됨에 反하여 {-자}는 亦是 <蒙老>·<清老>에서 {-아지라}와 對立하는 形式으로 實現되고 있다. 다음은 이와 달리 定動詞語尾

{-마}가 찾아지는 文例다.

(e-2) 이러면 내 빌라 가만 <老諺上, 17>

이러면 내 빌라 가^ㅁ 〈蒙老, 一, 24〉

이러^ㅎ면 내 빌라 가^ㅁ 〈清老, 二, 1〉

이것은 願望이라는 意味範疇에서 多少나마 벗어나는 느낌이 없는 바 아니지만, 그 底層은 亦是 共通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어떠한 要請따위에 應하여 許諾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事實이다.

이렇게 하여 願望形의 形式에는 大體로 {-아/어지라/-자/-마} 등이 分析된다.

以上 命令法의 定動詞語尾를 各 形式에 따라 一括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形式 叙法	先 行 語 幹	先 語 末 語 尾	語 末 語 尾	備 考
嚴 命 形	動 詞 오—	이/오 거/어	라	(c-1, 2)
			라	(c-3)
			라	(c-5, 6)
			쇼셔	(c-7)
			나라	(c-4)
請 誘 形	動 詞 다—		고려	(d-1)
			렴으나	(d-1)
			고	(d-2)
願 望 形			자	(e-1)
			아/어 지라	(e-1)
			마	(e-2)

結 語

이상 「老乞大」類 가운데 「老乞大諺解」와 「蒙語老乞大」, 그리고 「清語老乞大」에서 特定板本을 골라 國語關係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18世紀國語의 形態論의 特徵을 記述해 보려고 하였다. 形態論的記述이라 했지만 全般的인 領域에 걸칠 수가 없었으며, 다만 曲用形式, 그리고 活用形式에서도 定動詞의 몇가지 形式에 制限되고 만 結果가 되었다. 적어도 副動詞의 活用形式이 곁들여져야 할 것은 勿論, 統辭論의 特徵까지 記述되고서야 이른바 18世紀國語의 特徵이 그런대로 잡히기 때문에 未洽함을 뛴키 어렵다.

그러나, 이런 程度의 것만으로서도 資料로 採擇한 이들 文獻의 性格을 비롯하여 이들이 屬하고 있는 時期의 文法의 事實이 가지고 있는 基本性格은 밝혀졌으리라 믿는다.

이들 文獻에 反射된 言語의 特徵은 序頭に 前提했듯이 對話를 바탕으로 한 口語體가 基幹을 이루어 그 徵表가 各項을 通하여 確認되어졌다. 特히 〈蒙老〉와 〈清老〉의 性格은 이러한 點에서 顯著하게 個性의이었음에 比하여, 〈老諺〉은 擬古的인 文體와 漢文套, 즉 訓讀法에서 왔으리라

집착되는 因襲的語法의 殘影이 짙게 덮인 性格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러한 口語의 性格이 가장 分明하게 實現된 側面은 曲用이나, 活用의 여러 形式이 混亂스러우면서도 多邊的인 것으로 交替關係를 이루어 가고 있는 狀況이라든가, 文法的素性으로 記述되는 言語形式 以外에도 多樣的인 感情價値로 구실하는 形式들이 찾아지는 傾向같은 데서 特徵적으로 說明될 수 있었다.

全般的으로 보아 18世紀國語의 文法現實은 形態論의 여러 次元에 걸친 單位形式들 間에 言語的인 均衡과 安定이 造成되고 維持되었던 狀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한 狀況과는 反對로, 既存의 秩序와 體系가 崩壞 乃至는 發展的인 改造을 實驗하거나 苦悶하는 時期의 現象이 드러나 注目を 끌게 한다. 이러한 現象은 觀念화된 文語面에 나타나기에 앞서 相當한 期間동안에 걸쳐 實現되는 口語에서 陰性的으로 試行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採擇한 資料는 이러한 傾向을 把握하는데 알맞는 것이 되었다.

한편, 어떤 意味에서는 安定된 秩序의 基盤 위에서 運營되는 體系를 찾아 엮는 일보다도 이러한 狀況속에서 새로운 體系가 만들어지는 過程을 顯微鏡적으로 觀察하는 것이 훨씬 興味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進化的 原理같은 것이 오직 이 時期에만 特徵적으로 適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形態史의 荒茫한 未決章을 위해서도 重要的인 暗示的인 成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 Ⅱ章에서 記述해 온 形態論的인 特徵이 될 만한 대강을 概略하여 맺는 말로 하려 한다.

1. 曲用體系가 運用되는 가운데서 그 均衡의 安定성이 크게 動搖되고 있는 現狀임을 알겠다. 傳統的인 格表示의 基本形式에 의하여 運用되는 것 以外에 오히려 多樣的인 交替形式의 接尾辭나 後置詞에 依存되고 있는 斷面이 觀察되는 것으로도 이 時期의 格體系를 이끌어 간 安定度가 測定될 만하다.

2. 定動詞 直說法의 活用形式에서, 特히 先語末語尾의 推移過程은 注目の 焦點이 되었다. 그 한 例로서 {-았/었-ㄴ-}와 같은 形式이 容認될 수 있었던 것은 이 時期의 한 性格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3. 疑問形의 경우, {가/냐} : {고/노}의 對立關係가 굳어지면서, {-는다}의 類型들은 劣勢해졌음이 확실하다.

4. 定動詞 命令法의 여러 形式들에서는 勿論 文法的素性を 달리하는 對立이 있는 한편 感情價値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 形式의 分化가 찾아진다.

이것으로서 表題의 作業이 어김없이 施行되는 結果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時期의 形態論 研究의 몇가지 課題로서 關心을提起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18th Century Korean

—With Special Reference to Lau-ki-da(老乞大)—

by Seung-uk Lee

Eighteenth Century Korean belongs to Modern Korean. It was the language of the middle period of modern age that has the probability to reveal linguistic characteristic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18th Century Korean by means of synchronique description and system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modes of linguistic forms of structural opposition and correlative.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before the middle ages.

It is fortunate that the 18th century literature that contains data for the study of Korean is satisfactory enough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For the source of the material for my essay *Nogŏldae Ŏnhae (Korean Lau-ki-da) Mongŏ Nogŏldae (Mongolian Lau-ki-da)*, and *Nogŏldae (Manchu Lau-ki-da)* have been chosen. There are four reasons for my choice. The first one is that these three books were printed by engraved wood more or less in the same period, i.e. in the 18th century, the second one that they expressed the same meaning differently from each other, the third one that they were written in colloquial style, and the fourth one that they all have the character of a text suitable for language practice.

Morphological description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 language of this period that are found in the declension or in the conjugation and also to clarify the mode of its structure and measure the stability of the declension.

To give some of the conclusions to which this essay has come as to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18th Century Korean:

1. Except for the few specific ones, the basic form of denoting the cases in the declension is not very much different from that of Middle Korean, thus making itself somewhat too remote from Modern Korean. Unlike the traditional usage, basic modes of the language were subject to various complicated alternative forms. All the cases could be replaced by the zero-morpheme. The stability of the declension of this period has been measured to be out of balance.

2. The word-ending of the predicative form of finite verbs was {-ta/-ra}.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ta} and {-ra} were not in distinct opposition with each other. They are the forms which had been changed under a certain phonological condition. As a rule, they could have prefinal endings denoting tenses. Among the tense-denoters {-as/ös-nv-} (—았/었—)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u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tense-forms, as I have demonstrated in this essay.

3. The ending of finite verbs in the question form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Middle Korean. But the opposition relation between types of question forms underwent such a change as to make us doubt the validity of the then existing system. In other words, the forms {-nvn ~ta/-n~ta-l~ta} which had been valid for the declinable words to be question forms came to be weakened, and the opposition relation of the particles {-ka/-ko} which were used to make noun question forms is found to exist in the patterns {-nja/-njo} when these patterns had declinable pre-stems.

It is quite noteworthy that in forming questions with the stem of declinable words, such patterns as {-nvn~ka} and {-nvn~ko} were not only accepted but also widely used.

4. In the case of finite-verb imperative, whether it is the imperative of command, request, or of wish, its specialization is to be seen in the modes of expressing feelings-value rather than in the grammatical functions.

If combined together, the above-mentioned, items would be enough to measure the stability of the declension or the conjugation of the Korean language of the 18th Century.

The modes or systems of various aspects of 18th Century Korean were not stable in their position, nor transparent in their condition due to the collapse of the opposition system.